

2002년 완공 예정인 도서신관 조감도(관련기사 8면)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ARS 7000-119

느리지만 성실한 거북이처럼



다사다난했던 2000년이 지나고
희망의 2001년이 밝았습니다.
동대신문은
올 한해도
정론직필과
대중언론 창출에 힘쓰는
독자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이 되겠습니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 아날로그 카드 vs 디지털 카드 15면



- ☞ 신년사 2면
- ☞ 2001학년도 특차 결과 3면
- ☞ 민중의 소리를 들어라 6면
- ☞ 도약하는 동국, 변화하는 동약 8면
- ☞ 동대 학술·문학상 9~13면
본사가 주최하는 동대 학술·문학상이
올해로 각각 38회, 15회를 맞이했다. 학
생들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엄선하여
수상작을 선는다.
- ☞ 만화로 보는 2000년 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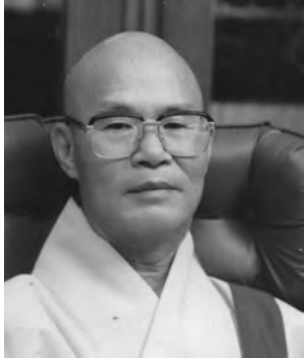


한해 동안 일어났던 학내의 주요 사
건들을 만화로 살펴본다.

신사년, 세상 밝히는 등불 가득하기를

세계를 향해 준비하는 동국 참된 인간교육의 열린 장으로

동국인의 지혜 모아서 세계의 대학으로 우뚝서자



희망의 빛과 서기로 가득한 오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광명으로 동국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 동국 학원은 어려운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교 100년의 금자탑을 향해 힘차게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동국인들이 힘을 하나로 응집시켜 노력한 결과, 대학 설립 이래 가장 역동적인 도약과 중흥의 전기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동국학원은 대학의 교육,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5만 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총 3만여 평의 건물을

신·증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산에는 의과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의 건립공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는 한국불교 1600년사의 긍지와 민족의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대학으로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향해 힘찬 준비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대학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송석구 총장님 이하 여러 교직원들의 원력과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대학은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하여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의 인식도를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새로운 학풍의 진작과 교육의 질적 고양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교육과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선진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수와 직원 모두의 자각과 분발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는 97년 말의 외환 위기 이래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사회 현실은 물질 중심주의 가치관의 팽배로 인하여 정신문명이 황폐화되고 있는 인간 상

실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국인들은 건학이념인 불교의 지혜와 자비 정신의 실천으로 이 시대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참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은 참다운 인간의 육성과 사회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국학원 산하의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은 먼저 교육관을 재정립하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보다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 태도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교수는 진지한 학문연구와 열정적인 강의로, 직원들은 친절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할 때, 우리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 세계화 시대의 빛을 창출할 수 있는 '인격과 기능을 겸비한 열린 인간 교육'의 이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아래 세계 평화와 나라의 융성, 그리고 동국인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축원하는 바입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 녹 원



파란중첩(波瀾重疊)의 경신년이 가고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신년은 우연히 토끼가 나무에 와서 부딪치는 것을 보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나무를 지키고 있는 태도로서는 아무 것도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해 준 한 해였습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 이제 이런 어리석음은 버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창조해 낼 것을 다짐해야 하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쇠방망이를 다들어 바늘을 만드는 마철저(磨鐵杵)의 각오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각오와 답소자약(談笑自若)의 자기 긍정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모든 동국인들이 지혜를 갖춘, 세상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개교이래 불교의 정신으로 항상 대학의 사명을 다하고자 애써 온 우리 동국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95주년이 되면서 이제 한국의 대학사에 큰 획을 그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개혁을 통하여 한국의 대학 발전을 선도해 온 우리 대학은, 개혁과 변화를 완성하여 동국을 도리만천하(桃李滿天下)의 전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복숭아와 오얏은 그 좋은 열매 맛으로 인하여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거기로 가는 길이 생기기듯이, 좋은 학교, 훌륭한 스승 아래로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천리마(千里馬)도 백악(伯樂)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개혁의 실천을 통하여 형식을 바로 하고 불교종합병원 건

립에 박차를 가하여 다듬어진 동국 천리마도 동국 구성원 여러분 모두가 백악이 될 때, 광희를 발하면서 세계의 대학으로 우뚝하게 될 것입니다.

포호방하(暴虎馮河)라고 만약 맨 손으로 범을 잡고 배 없이 강을 건너고자 한다면 이는 만용일 뿐, 자기 생존조차 도모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국은 신사년 새해에도 보다 더 철저한 교수와 학습,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어 여러분들의 도구와 배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자신을 곧추세우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야 송백(松柏)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해, 미증유의 환란 속에서도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룩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난관을 능히 격파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더 큰 희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 왜 동국이어야만 하는가를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호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송 석 구

“삶에 당당하고 떳떳한 새천년의 주인공 되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새터를 통해서 부상을 입었던 학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사고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 해결함으로써 학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불상사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처리하고 학내 자치활동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만이 진정한 동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내의 재 문제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민중동국 일만 이천 학우여러분!

우리 학교를 지칭할 때 학교명칭 앞에 '민족'이라는 문구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9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민족동국을 사랑한다면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와 학교와 나라와 민족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삶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 의미 있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자칫 들뜨기 쉬운 마음을 차분히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더욱 철저히 구상해 가는 일만 이천 학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더욱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지내는 학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일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3대 자주적 총학생회 서울캠 총학생회장 김홍민

참으로 어둡고 고난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좋아지는가 싶더니 다시금 사회의 분위기가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음을 느낍니다. 학내의 구성원들도 새터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일정한 대립과 마찰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과연 정도(正道)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고민하고 철저히 그에 근거한 실천적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3대 자주적 총학생회 역시도 항상 이러한 정도의 입장과 그에 따른 실천적 견지를 체화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개교한 지 95주년이 됩니다. 민족간부의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이래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 왔던 역사가 바로 민족동국 95년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민족동국의 자랑 찬 역사를 이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여 왔던 넓은 인성과 관력은 과감히 벗어 버리고 내실을 기하는 21세기의 첫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학내 복지환경을 더욱 질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생활 법인화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진행해 완전히 독립된 단체로서 동국가족 모두의 복지를 철저히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목errick 단과대 학생회장 신년인사

불교대

어느새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보왕삼매론'에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실은 나를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드는 스승이라는 생각으로 하루 하루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불교대 학생회장 김대수

문과대

2001년 새해 서로간의 경쟁과 배제의 원리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출발의 한해,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작은 것일지라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동약과 명징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문과대 학생회장 이재광

은방골 단과대 학생회장 신년인사

불교문화대

모두가 부푼 마음으로 시작한 새천년이 못내 말하지 못한 무언기를 남기고 저물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일만 동국인들이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고 하나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일만 동국인 가정에 화목함이 넘치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불교문화대 학생회장 박대규

자연과학대

아직도 주위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있고 대학생들은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휴학이나 군입대를 희망하고, 학교측은 올해도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과학대 학생회는 학우들의 자치권과 공동체를 복원하고 아울러 등록금 동결과 학생권력 복원을 위한 다짐 속에 더욱더 정진할 것입니다.

자연과학대 학생회장 손재영

경영대

청년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언제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올 한 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고, 더 힘찬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입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힘차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경영대 학생회장 김성호

생자대

2001년은 생자대 학생회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오백 학우의 생각을 대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농활에서 농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학생회 활동을 도우며 과연 학우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회 회장을 맡으면서 가졌던 이 첫 마음이 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자대 학생회장 이만희

법정대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고, 등록금인상으로 인해 우리의 친구들이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14대 법정대 학생회는 이러한 학교의 부당한 방침에 대해 여러분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정대 학생회장 조재기

상경대

다가오는 새해에는 처음의 마음가짐이 줄어들지 않고 시간과 함께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본다면 일년은 스스로의 발전과 함께 그 일년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의 강도를 적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의 첫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부지런하고 올바른, 그런 젊은 지성을 가진 동국인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상경대 학생회장 조현철

공과대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경제도 얼어붙어 거리를 나가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의 기쁜 표정보다는 얼굴을 찡그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언제나 혁신하는 학생회, 관심을 집어던진 학생회, 그리고 나로부터 변화하는 학생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과대 학생회장 황정민

사범대

33대 사범대 학생회는 정은이와 학운이에 대한 의리를 다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했던 두 친구에 대한 의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청년다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민하고 실천하며, 참교육을 고민하는 예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해로 만들어 봅시다.

사범대 학생회장 주진완

한의과대

저희 11대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학우와 함께가는 학생회'라는 올바른 공동체 신념으로 '교육환경개혁'을 일궈낼 것을 여러번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년14대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이러한 학교의 부당한 방침에 대해 여러분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의과대 학생회장 최호성

야간총학생회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들 마음은 그리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사정과 환율의 압박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허탈하게 하는 것은 비단 경제사정과 환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겨운 미소를 비춰주는 보름달 같은 믿음과 환한 가로등이 없는 것 또한 이유인 것입니다. 새해는 야간강좌총학생회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김태경

“2001년 모두가 주인되어 희망찬 대학문화 꽃피우자”

1만 동국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 학우님들을 만나 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직접 만나뵈지 못하고 동대신문을 통해 만나 뵈게 된점 사과드립니다.

11월 29일 지난 1년간의 공백을 메우며 17대 학우감동 총학생회가 건설 된지 어느덧 1달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구조조정이다 했던 격동의 20세기가 바로 어제 같았는데 이런 이러한 기억속 저 편으로 밀려나고 벌써 21세기의 희망찬 첫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21세기 첫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지난해의 아픈 기억을 밀어내기도 전에 현재 처하게된 슬픈 현실 때문에 그리 희망차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2001년은 경제난으로 인한 피해가 실로 엄청날 것이라는 징후가 벌써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계가 끊어지고, 거리의 부랑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 시점, 또한 이와 더불어 급격히 변화하는 대학의 현실!

취업과 경쟁의 현실 앞에 우리만의 문화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고, 21세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개인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며 남을 위한 배려가 남의 얘기인 양 치부하는 지금, 한 번쯤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들이 이러한 각박한 현실때문에 가슴속 한켠으로 묻혀져가고 있습니다.

순응이 일상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진취적인 기상으로 이 땅의 진정한 주류로 남아야할 대학인들은 어느덧 그 설자리를 잃어버렸습니



다.

그러나 21세기의 첫해인 2001년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주류이며 우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시작되는 공간, 바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일상의 탈주를 1만 동국학우님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자유와 반란이 표현되어질 수 있게, 모든 표현이 우리의 이름으로 옹호 받을 수 있게끔 일상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동국"을 저희 17대 학우감동 총학생회 학우님들과 더불어 만들고자 합니다. 거창한 언어로 포장되어지는 껍데기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몸짓과 발언으로 우리만의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진정한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21세기의 첫 신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동국 1만 학우님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을 맞설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 또한 2001년 신학기 개강 후 학우님들과 함께 열여덟 대학생활을 기다리며 차분한 준비를 하나 하나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학우여러분!

20세기의 마지막 방학 잘 보내시고, 알찬 계획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7대 학우감동 총학생회 경주캠 총학생회장 이교형

제29회 동국인의 밤 개최

‘제 29회 동국인의 밤’ 행사가 지난달 14일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총동창회(회장=권노갑) 지한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동창회 류주형(농·57졸) 수석 부회장 등 4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본교를 빛낸 공로로 국가정보원 단장으로 승진한 전영화(경쟁·69졸) 동문을 비롯한 27명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또한 기부지역 활성화와 동문단체에 기여한 공로로 오동익(경제·61졸) 경제패와 동문회장 외 42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한의학과 동문회는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1억 3천만원을 기부했다.

머리 독일대사 총장실 예방

후베르투스 폰 머르 주한 독일 대사가 지난해 9월 부임 이후 국내 대학 가운데서는 첫번째로 지난달 1일 송석구 총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머르 주한 독일 대사는 이날 본교에서 열린 제3회 한국독일 학회(회장=조희영·경영학) 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한 후 본교 건학 이념의 상징인 정각원을 둘러보며 “가장 한국적이고 불교적인 대학 분위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패식 대표이사 명예 박사

지난달 27일 진양토건 주식회사의 양패식 대표이사(사)가 본교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84년 진양토건 주식회사를 설립한 양패식 대표이사는 수해복구와 댐 건설 등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본교는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한국건설업계의 위상을 높인 양패식 대표이사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학위를 수여했다.

2차 어학 특강 실시

언어연구 교육원(원장=조의연·영문학)은 겨울방학을 맞아 2차 어학특강을 실시한다. 서울캠프는 이번달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특강이 진행되며, 경주캠프는 오는 5일까지 접수를 받아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캠프는 TOEIC, TEPS, TOEFL, 일본어 등이 진행되고 경주캠프는 TOEFL, 영어회화 초급과 중급과정이 진행된다. 수강료는 강의시간과 기간에 따라 서울캠프 8만원, 경주캠프는 7만원이다.

2001학년도 특차전형 치러져

정시모집 오는 19일 합격자 발표 예정

2001학년도 특차모집이 전·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치러졌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서울캠프 전반기 전형은 총 725명 모집에 3천36명이 지원했으며,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전형은 총 734명 모집에 1천456명이 지원했다. 4.1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전반기 모집에서는 외국어 우수자, 특기자, 추천자 등 특별전형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한 반면, 1.98 대 1

의 경쟁률을 보인 하반기 모집은 수능성적을 통한 일반전형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했다. 특차모집 결과, 전반기 특차는 지난해와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으나 특차 하반기 경쟁률이 지난해 2.3대 1이었던 것보다 다소 떨어진 1.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이종석실장은 “2001학년도 입시에서 높아진 수능점수로 학생들이

특차지원을 두려워하고 커트라인이 2~3점 낮은 정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우리학교 경쟁률이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캠프는 특차모집을 마친 후 ‘나’군 전형일정에 따라 27일부터 29일까지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했으며,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논술과 면접·실기고사 등을 치른 뒤 오는 19일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교 사시 대거 합격 쾌거

권준율군 사법·행정 양과 동시합격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제42회 사법고시결과에 따르면 본교는 총 8명의 합격자를 배출, 전국대학 중 여섯 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합격자는 △김용수(법92졸·제주제일고) △박재철(정의92졸·목포홍일고) △노봉기(법95졸·광주사례지오고) △서응원(법95졸·덕소고) △황태웅(법97졸·강릉고) △김철웅(법4·경동고) △임재익(법4·대구영신고) △권준율(법4·대전고)이다.

이번 발표는 본교 역사상 제일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학생정원 100명, 교수 12명이라는, 타대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법대규모에 비추어보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또한 93년에서 96년 사이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인 학생이 3명이나 합격하였는데 이는 사시합격자의 연령이 젊어졌을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들어 본교 입학생들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음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 합격’이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합격자들의 출신 고교를 보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는 본교가 전국의 영재들이 모여들어 미래의 지도자가 될 꿈을 키우고 있는 배움의 도량이라는 생생한 증거라 여겨진다. 그 가운데 권준율군은 제44회 행사에도 이미 합격해 본교 역사상 최초로 한해에 양과를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관련 기사 4면(학내보도)

한편, 지난해 11월 23일 발표한 제44회 행정고시에는 총 6명이 합격한 바 있다.

2001년 새터 논의 지연

새터사고 해결 후 논의 가능할 듯

학교와 총학생회가 새터사고 부상자 위로금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미시령 사고 직후부터 총학생회와 학부모 측은 학교측에 위로금 지급을 주장해 왔으나 학교측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올해 새터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새터사고 위로금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학교측과 2001년 새터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단

과대 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교측과 최종 새터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홍민(지교4) 총학생회장은 “올해 새터를 계획하는 데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측과의 논의는 최대한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며 “학교측이 원거리로 가는 새터를 반대할 경우 장충체육관 등 학교 근처 시설물이나 학내 강당에서 진행할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새터가 무산돼 올해 새터의 성사여부에 학생들의 관심 또한 높다. 송옥연(문과대1) 학생

은 “신입생을 환영하는 중요한 행사인 새터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며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새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의 이창학 과장은 “아직 부상자 보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새터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사고 부상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새터 계획안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길 기대해 본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해암 종정 예하 병원건립기금 출연 불교인들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



대한불교조계종 해암 종정에 하는 지난달 12일 동국학원 이사장 오록원 스님에게 병원건립의 원만성취를 축원하는 ‘불교종합병원 교화중생(佛敎綜合病院 教化衆生)’이라는 휘호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해암 종정 예하는 오록

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과 함께 병원공사현장과 제 3캠퍼스 부지를 둘러보는 등 1600년 한국 불교사에 획기적인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관심을 표히시며, “모든 불교인들이 이 역사적인 불사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생협 독립 법인 추진위 해산

이사회 구성안건 의견차 못 좁혀

생협독립법인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10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돼 독립법인 추진이 무기한 연기됐다. 제10차 생협 독립법인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은 이사회구성 안건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28차 이사회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차 회의부터 단일 안건으로 논의되어 온 이사회 구성 안건에 대해 학교·교수회 대표와 학생대표가 서로 대립된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교수회 대표 이사들은 기존 11명의 이사에 학교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은 학교측이 책임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 있다는 점과 학교추천인사는 1명 이상 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대해 왔다.

이러한 대립은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이번 10차 회의를 거쳐 결국 생협독립법인

추진위원회 해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추진위원들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보다 각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영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생협 제28차 이사회에서 △김진철 이사장의 사퇴수리 △생협정기총회 일정 △독립법인추진문제를 안건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교원 이사들이 김진철 이사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발표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추진위원회 해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추진위원들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보다 각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영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생협 제28차 이사회에서 △김진철 이사장의 사퇴수리 △생협정기총회 일정 △독립법인추진문제를 안건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교원 이사들이 김진철 이사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발표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2001년도 시무식 3일 개최

사무처(처장=황영수) 총무팀은 오는 3일 ‘2001년도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연다. 올해 한해 시작을 알리고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정각원에서 예불을 한 후, 상록원 교직원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신년하례와 시무식을 가질 예정이다.

보리수

자비와 사랑이 하나되면

윤 청 광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불경’과 ‘성경’에는 비슷한 가르침이 수 없이 많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다’고 할 수밖에 없는 대목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나에게 해(害)를 끼치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처님과 예수님은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만일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툽날로써 어떤 도둑이나 악한들이 나의 사지를 끊는다 해도 그때에 그 마음이 어지럽고 상난다면 이것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비구는 이와 같이 나에게 어떠한 비난과 모욕의 말을 더하는 사람이 있을 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며, 이와 같이 모든 세상사람들에게 넓고 끝없는 사랑과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채우기를 수련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사지를 끊는 악한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가르침을 내렸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급하지 말라.”

‘불경’과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듯 비슷 비슷하고, 똑같은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땅에서는 일부 몰지각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극단적인 기독교도들이 남의 종교를 폄하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려 드는 무지막직한 만행을 저질러 왔었다.

시월초파일 밤, 조계사 코앞 골목길에 물러와서 ‘할렐루야!’를 미친 듯 외쳐대기도 하고, 사찰에 불을 지르고, 불상을 파괴하는가 하면, 성스러운 불상에 케인트 칠을 하는 등 참으로 그동안 불교는 참기 어려운 수모를 당해왔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서정대총무원장스님이 ‘성탄축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예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서원장스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몸소 가르치고 깨닫도록 한 사람과 진리의 말씀이 불교의 대자대비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부처님과 예수님의 뜻이 중생제도와 인류구원이요,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다르지 아니할 진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대망의 2001년 새해부터는 종교간의 화합과 협력으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요대학, 등록금 인상 발표

본교 사실상 인상 예정 ... 조속한 등록금 논의 시작해야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방침을 발표하면서 대학가에 다시 한번 등록금 문제로 인한 진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최고 27%의 인상방침을 결정했고 사립대학인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9%~15%, 6~7%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고려대는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이번 달 중순부터 학생, 대학원생, 학교 당국 등 3개 주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인상폭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 계획이다. 연세대 역시 이달 초부터 면담을 통해 합의를 벌이게 된다. 이밖에도 한양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5~10%의 인상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이 등록금 인상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동결해온 것과 불가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이다.

본교의 경우 올해 예산 계획안이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발표한 다른 대학들과 비슷한 이유로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팀 김준호 팀장은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인상방침을 결정했으니 본교도 인상

이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문제로 학생회측과 학교측간의 의견 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33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김홍민(지교4)군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이로 인해 매년 휴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고려한다면 등록금은 동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회와 학교측 간의 의견 조율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등록금 협의가 늦어져 예산

안이 확정된 후에도 협의가 지속된다면 형식적인 대화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동안 학교측은 등록금 인상방침을 분명히 한 후 협의에 임해 왔다. 학생회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의사를 밝히더라도 예산안 수정 등의 어려움을 들어 등록금 인상을 강행해 왔던 것이다.

올해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측과 학생회의 등록금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김현중 기자
dizy20@dongguk.edu



설레임 ...

본교 정시 지원 모집이 지난달 27일 부터 3일간 진행됐다. 사진은 역사교육과 학생회에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과선행회를 하는 모습.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회전무대

몰아내기(?)

O...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던 144명의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게 봤다는데.

알아보니 중도 제 1열람실이 무기한 휴실하기로 돼 144개의 좌석이 사라진 것이라고. 공부할 공간이 한 순간에 사라진 학생들의 항의 앞에 중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소정이는 일으키기, 중도는 몰아내기(?)"

거짓말

O... 불심검문의 시대가 돌아왔다!

지난 12월 27일 본교 후문, 전투복을 입은 전경들로 발 디딤틈이 없었다는데.

알아본즉,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 이후 은행 노조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학교까지 찾아왔다고.

하나 학교를 드나들던 학생들이 신분증 검사는 물론 책가방 검사까지 감수해야 했다 하니.

막 중문을 통과한 학생 왈, "저기(열지마) 여기요(보지도마)~ 내 가방은 열지 말고 떠나가(제발 가버려)"

www.권리.com

O... 사이버 상에서 말할 자유를 보장하라!

본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친다는데.

알아본즉, '나의 주장' 게시판에 함악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자 학교측이 예고 없이 게시판을 폐쇄했다고.

무기한 폐쇄된 게시판을 보며 회전무대자 왈,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사이버상의 권리를"

겨울낙엽

O...동양 곳곳에 철 지난 낙엽들이 휘날린다는데.

알아보니, 학내 각종 행사들을 홍보했던 대자보들이 방학이 시작된 후에도 수거되지 않아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이는 작은 주의가 부족하여 동양 전체의 미관을 해치는 현상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가을이리구요? 겨울이죠? 때어난 낙엽은 이제 그만."

재학생 36% 장학금 신청

200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집계 결과 재적인원의 약 36%인 3308명이 신청했다.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는 신청한 학생들의 성적·가정형편 등을 심사한 후, 1300여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 수혜 결과는 다음달 8일부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32%에서 최대 전액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출판부, '한국불교...' 출간

출판부(부장=김병수)는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을 출간했다.

이 책은 본교 목장배(불교학) 교수 가 그 동안 연구했던 논문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은 순수불교학·계율·한국불교의 신앙 등 다양한 한국의 불교사상과 신앙을 조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불교학을 새롭게 집필했다는 평이다.

와세다대학 법학도서 기증

일본 와세다 대학이 본교에 2천여권의 책을 기증했다.

일본의 공법, 사법, 민법과 같은 법학관련 도서가 대부분으로 '자본론초고집'과 같은 경제학 관련 도서도 포함되어 있다. 자대대학이 아닌 와세다 대학의 도서 기증은 한상법(법학) 교수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 도서관에 보관될 2천여권의 책은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시·행시 양과합격 권준율(법4)군을 만나

"전문성 갖춘 행정관료 될터"



사냥꾼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쳐버렸다. 하지만 본교생으로는 최초로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은 사람이 있다. 바로 본교 권준율(법4)군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이어 제44회 행정고시와 제42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권군은 "막상 합격하고 나니 기쁨보다 앞으로 해야할 공부나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소감을 말한다. 비록 사법고시가 2차 합격자 발표지만 3차 면접시험은 2차 합격자 대부분이 통과하기 때문에 양과를 모두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권준율군은 지난 96년 본교 사회과학계열에 입학, 이듬해 법학과로 전과하면서부터 행정고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8년도 행정고시 법무행정 분야 1차 시험에 낙방한 후, 지원 분야와 관련있는 전문

적인 법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법률 공부를 하면서 그 자체에 매력을 느껴 본격적으로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같이 준비하게 된 것이 양과를 연이어 합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 권준율군은 "사법고시는 단지 시험이지 법률가 정도의 법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험에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치르고 열흘 후 다시 행정고시 2차 시험을 볼 때, 권군은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권준율군은 "지금 포기한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었다.

마지막으로 "원칙을 중시하는 법학적인 사고와 행정에서 중시되는 합리적인 사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권준율군은 "우선 사법연수를 마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행정 연수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기준 변경

환산기준 높여 ... 취업시 피해 다소 감소할 듯

학부 4년 동안 취득한 평점평균을 백분율로 환산하는 기준이 변경돼 본교 졸업생들이 취업 때 겪는 불리함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마다 성적의 등급과 평점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해마다 대학 졸업자들은 입사지원서에 평점 대신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점수를 기재한다. 이렇게 해야 여러 학교 졸업생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마다 정해진 급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환산 기준을 정할 수 있어 학교마다 평점평균에 대한 백분율 환산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의 박광호 과장은 "본교의 경우 점수 인플

레를 우려해 환산 기준을 낮게 잡아 타 대학과 비교해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점수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본교 졸업생들은 지난 7년 동안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타대 학생에 비해 불리했던 것이다.

본교 신방과 4학년예 재학생인 최정식 군은 "입사지원서를 쓰면서 친구가 다니는 대학에 비해 본교의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며 지난 12월 중앙도서관에 본교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그동안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백분율 환산 기준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측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26일부터 평점평균 백분율 환

변경 전	변경 후
400점 : (평점평균 × 20) + 10 400점 : (평점평균 × 10) + 50 예) 3.0 → 80점	60 + (평점평균 - 1) × 40/35 예) 2.75 → 80점

산 기준을 변경했다.▶(표)참조

예를 들어 직원채용 지원자력이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 80점 이상일 때 본교 졸업생은 평점평균 3.0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려대 졸업생의 경우 평점평균 2.75만 넘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백분율 환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학부
flower@dongguk.edu

제대 원총 이주환·정윤길 조 당선

조교제도 개선 등 약속

지난달 13일 실시한 제7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에서 이주환(사학 박사과정)·정윤길(영어영문학 박사과정)조가 당선됐다.

정원 1천472명 중 176명이 투표해 11.9%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159명이 찬성해 90.3%의 지지율로 선출된 이주환·정윤길 조는 공약으로 내세운 △조교제도 개선 △동원학술상의 명문화 △세미나실 신설 △타카소 설립 등의 사업을 진

공용컴퓨터실 단축운영

공용컴퓨터실이 다음달 15일까지 방중 단축 운영을 실시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축 운영하며, 주말은 △동국관 M동 1층·5층 BSC10 △정보문화관 P동 2층 ESC5 등 3개의 컴퓨터실만 개방한다.

교수동정

▲원치선(전자공학)=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Electronic Imaging 2001에 참석해 논문 발표

▲이건(사회학)=오는 3일부터 8일까지 중국 홍콩에서 열리는 Labour in a Globalising World에 참가하여 The Challenge for Asia라는 제목으로 발표

▲이재진(전자공학)=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소정 일으키기'에서 감사를 전합니다

'자기면역질환'으로 서울대병원에서 4개월째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98학번 경제통상학부(경제학전공(OB)) 이소정학우에게 보내주시 많은분들의 관심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10,074,634원과 현물증 985장을 모았습니디. 울 한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와주신 분들>

단체 △무역학과(야), 경제학과(야), 경제통상학부(야), 아시아지역학부(야), 불교학부, 통계학과, 회계학과 △어학연구교육원,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실, 자연과학연구원, 석학회 봉사단, 생명나눔실천회, 동국대학교 열혈은행, 야간강좌 교학과, 그리고 송석구 총장님 △출판연 목명국, 서울대 불종선, 우리는 선우, 필봉국 서울전수관, 한겨레 예술단, 성신여대 어울림, 서울여대 땅울림, 이화여대 다스름, 숙명여대 사랑 △서울시청 대기보전과 직원일동, 두래원 △법대 영화소모임 '인디', 동국문화회, 탈, 아리랑, 미래내 동문회 △33대 총학생회(건), 16번째 학생복지위원회, 13기 단과대 품물패 연합, 16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아총품물패 마당)

개인 △곽우기, 이진선, 전봉준, 음정임, 이상복, 민용과 효미, 신금주, 한원희, 김유진, 이선주, 김종호, 김천택, 박은경, 김세호, 이경희, 김선문, 지병철, 배경주, 이복자, 안효혜, 송현희, 최혜숙, 김혜선 △동국관, 명진관, 문화관, 원흥관, 학림관, 중앙도서관에서 모금을 해주신 익명의 학우분들 △소강당영화제, 일으키기 영화제, 일으키기 후원의 밤에 오신 많은 분들

'일으키기' 활동에서 모은 모금액과 현물증은 소정의 치료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단체: 33대 총학생회(건), 16번째 학생복지위원회, 13기 단과대 품물패 연합, 16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아총품물패 마당)

소정이를 돕기 위한 모임 '일으키기'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병역비리 관련자의 입영의무 연령이 30세에서 35세로 연장함.
- 면제 또는 보충역으로서 학력이 상한변동된 사람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게 된 학력변동자의 병역처분제도를 신설함.
- 공정한 징병검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만 방도목 한정되었던 것을 지방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다양화함.
- 거주지역에 공익근무요원 소요가 없거나 학력이 낮아 장기간 대기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면제하는 제도 신설함.
- 1급 계약직 공무원도 병역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
- 징병검사 의무발생시부터 병역의무종료시까지의 모든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면제자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 범위 확대
- 병역사항 신고서류중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던 것을 조회등으로 간소화
- 징병검사시 전자신분인식 카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
- 2001년 5월 1일부터 내방민원인에게 직접 입영일자를 결정하는 "입영일자본인 선택시스템" 실시
-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인터넷(www.mma.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시 연대보증을 세우던 것을 보증보험회사의 귀국보증증권으로 대신 할 수 있게 되었음.
- 국외이주자의 국내영리활동시 병역의무가 부과됨.
- 상근예비역 소집재대상중 본인이 희망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상근역 선발 취소제도를 신설함.
-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무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범위 확대

국회도서관 학술정보 이용안내

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학술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기간 : 2000. 11. 15~
- 이용 장소 : 중앙 도서관 3층 참고도서관(3대) / 1층 정보검색실(2대) - 설치 예정
- DB 정보
 - ① 본문정보- '사회과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28만여건
 - ② 목록정보-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의 265만여건 (목록정보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검색가능)
- 본문정보는 Mac address체크방식이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 가능
- 기타 이용 안내는 참고도서관(3456)로 문의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아동상담사 워크샵

한국아동학회에서 개최하는 「아동상담사」 워크샵을 본 캠퍼스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아동상담사 자격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해당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워크샵 참여 후 이수증이 주어지며, 이수증으로 놀이방과 어린이방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 간 : 2001. 1. 9(화)~1. 13(토) (5일간)
- 시 간 :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8시간/1일, 점심시간 포함)
- 장 소 : 교육매체실(본교 도서관 3층)
- 워크샵 참여비 : 재학생- 14만원(본 실 2만원 보조) / 졸업생 및 외부인 - 16만원 * 식비, 교재비 포함금액
- 워크샵 내용 (5일 일정)
아동정서 및 행동문제 / 놀이치료 / 아동상담기법 / 부모 상담 / 아동심리 평가

2000년 직업세계의 세계 비디오(ebs)

순번	비디오명	순번	비디오명
1	홀소킹 호스트	16	프로게이머
2	운동처방사	17	텍스타일 디자이너
3	시장브랜드 디자이너	18	영양사
4	호텔G.R.O	19	보험계리인
5	요리코디네이터	20	관광상품플레너
6	홍보매니저	21	캐릭터 디자이너
7	테마파크 이벤트 기획자	22	인터넷방송PD
8	항공사 승무원	23	작업치료사
9	인터넷쇼핑운영자	24	아트디렉터
10	특수학교 교사	25	운동경기 심판
11	소믈리에	26	플로리스트
12	음반자켓디자이너	27	성우
13	선물거래사	28	뮤지컬 배우
14	도선사	29	이벤트전문가
15	수의사	30	인터넷게임프로그래머

* 신분확인 후 대여해 드립니다.
문 의 : 여학생실(770-2056)

경주캠 여학생실

수능 고득점자 인플레...수험생 혼란

한의예과, 3백90점 이상 고득점자 1백여명 탈락

2천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중·상위권 수험생의 점수가 크게 향상되어 전국대학이 학생선발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고득점자 인플레 현상속에서 본교도 입시전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2천1학년도 수능 결과를 간략히 분석해 보면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많은 역피라미드 현상인 △자연계 수험생의 평균 점수가 인문계보다 높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 △재수생 강세 되풀이 △제 2외국어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됨 등이며 이 중 고득점자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고, 자연계 수험생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본교 특차후반기 일반 전형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차 후반기 전형에서 지난해 2.07:1을 보인 전체 경쟁률이 올해는 1.77:1로 다소 떨어졌으며 모집 인원 574명 중 39명이 미충원됐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전체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전체 정원 38%에서 47%로 특차 모집 인원을 증원해 발생한 현상"이라며 "특차 전·후반기 때 미충원된 총 인원은 97명으로 정시모집에 추가 모집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능 100%로 선발하는 특차 후반기 일반 전형에서 본교는 자연과 학대학의 지원자격(변환 표준 점수)을 수능 백분위 전국 상위 45%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올해 수

능에서 전국 상위 45%의 점수는 3백43.25점으로 지난해보다 24.1점이 나 향상돼 모집정원 82명 중 52명만 지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자연계열 다수의 수험생들이 수능 백분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점수만을 보고 자신을 고득점자로 착각, 수도권지역에 대거 지원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자연계 수험생의 비율이 작년보다 줄어서 자연계 수험생의 인문계 진출의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의예과의 경우 모집정원 24명 중 135명이 지원해 5.63: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후반기 특차 일반전형 합격자의 수는 평균 점수가 393.48점(수능 상위 0.5%)으로 지난해 384.35점(수능

상위 0.9%)에 비해 9.05점 상승해 39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100여명이나 탈락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합격자 처리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실장=김종진)의 박해구 과장은 "본교 입시 전형방법에 수능성적의 변환 표준점수를 적용해서 동점자가 많지 않았다"며 "이제까지 2명의 동점자가 발생했으나 모두 초과 합격 처리됐다"고 말했다.

고득점자 인플레이션 현상은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원서 접수와 마치고 오는 30일에 합격자 발표를 앞둔 정시모집에서도 계속돼 신입생들의 입학점수가 평균 20점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총학선거 투표율 52.5% 보여

단독입후보자 이교형·손석우조 당선

지난 해 11월 29일 실시된 2천1학년도 제 17대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교형(관경3)·손석우(경영3) 조가 당선됐다.

총학생회 선거 결과 총 유권자 수 8천477명(4학년 제외한 유권자 수 6천503명) 중 3천418명이 참여해 52.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2천813표(82.2%) △반대 406표(11.8%) △무효 197표(5.7%) △분실 2표 등의 지지율로 제 17대 총학생회가 건설됐다.

이와 관련해 이교형 총학생회장은 "지지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학생들과 함께 하는 열린 학생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사람을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시킨 것은 물론 개표에서도 위원들이 반대 50표를 찬성표에 포함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선거 진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위 여론이 높다.

기숙사 동계방중 개방 실시

생활관 자치위원회 84.6% 지지율로 당선

금장생활관(관장=박상신·생화학)은 지난 달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재관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관을 개방한다.

다수 관생들의 생활관 숙식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동계방학 중 개방은 최소 2박 3일 이상 신청 가능하며 숙식 일주일 전에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는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폐문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춰진 오후 12시로 정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29일 치러진 제3대 생활관 자치위원회(위원장=윤준일·회계3) 선거 결과는 단독 입후보한 정=이종욱(관경2)·부=최진재(사복2)조가 총유권자 97명 가운데 689명이 투표해 75.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583표, 반대=80표, 무효=26표를 얻어 84.6%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회전무대

과도한 평가(?)

○...지난 학기말 실시된 강의평가제가 학생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는데.

알아본즉 한 학생이 '강의평가서에 이름 쓰기를 강요하는 강사'에 대한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자 이를 동조하는 학생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했다고.

더욱이 학생들이 강사와 일대일로 평가에 참여한 경우도 있어 강의평가제의 본질을 의심케 할 정도였다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보이죠, 보나요, 강의평가서에 적힌 내 이름을(!)"

동파와 함께 사라지다(?)

○...방중인 요즘 학생회관을 출입하는 학생들은 이곳 저곳에서 실망을 금치 못 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동파방지를 위해 학생회관 2층과 4층 화장실을 폐쇄하면서 애꿎은 2층 정수기만 장식품인양 뒹내고 있어야 한다 하니.

더욱이, 뜨거운 물만 제한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관리자의 성급한 우려로 학생들은 정수기 구경만 해야한다고.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왈 "관리자, 저리가~ 난 네가 싫어. 네가 정말 싫어~"

보고 또 보고(?)

○...온방굴 일부 건물에서는 잘못된 층수 표지판으로 인해 미로찾기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알아본즉 학생회관은 층수 지정이 올바르지 않고 의학관은 3층인 의학연구소의 위치가 1층으로 되어 있어 이리저리 헤메는 이가 한 두명이 아니라고.

더욱이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학교측은 임기응변식 대답만이 능사라는 태도를 보인다 하니.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왈 "온방굴 건물에 들어설 땐 표지판에 개지리 말라(?)"

대학을 다 가져라(?)

○...최근 입시철을 맞아 몇몇 대학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데.

알아본즉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지중의 일부는 외국에서 초, 중, 고교 과정을 모두 마친 것으로 위조해 무시험으로 입학했다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특례입학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고 했나(!)"

벤처, 중기청 실태조사...우수센터 선정

지방 보육센터의 발전가능성 제시하는 계기 돼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변정용·컴퓨터학 이하 보육센터)는 지난달 5일 중소기업청(청장=한준호)으로부터 '2천년 전국 보육센터 실태조사'에서 우수 센터로 선정돼 상패를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본교 보육센터의 성과를 보여주는 한 단면임은 물론 지방 보육센터의 가능성을 제시한 일에도 기록되고 있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3개 지원주체가 모두 협력한 현 지원

체제의 구성은 본교 보육센터의 큰 특징이자 보육센터의 표본적인 형태로 그려지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거둔 성과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덧붙여 중소기업청의 우수보육센터 지원계획에 따라 본교 보육센터에 정부 보조금 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경주시에서는 1억 5천만원의 지원금이 확보되어 앞으로 보육센터의 발전 방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육센터는 현재 졸업심사

를 진행중인 드림스튜디오(대표=태병원)와 자진퇴거를 선언한 어드벤처(대표=이은정)의 퇴실에 따라 새로운 입주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치러진 종합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다른 보육센터들 역시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되새기고, 보다 많은 노력과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학복위, 벼룩시장 운영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민성기·사복4 이하 학복위)는 지난 달 8일부터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학복위 사무실에서 접수받으며 가격은 일정량의 물품이 모인 후 결정된다.

행사와 관련해 민성기 위원장은 "행사 마감 일은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에 대비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재학생과 신입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재직동문회 장학금 전달

본교 경주캠퍼스 재직동문회(회장=김희오·국대관계)는 지난달 5일 원호관 소강당II에서 동문회에서 선발한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생은 지난 11월 24일 총장실에서 단과대 학장의 추천을 받은 16명 중 재직동문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상과 봉사상 두 부분에 대해 각 1명씩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공로=서명희(국약3) 국약부본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점이 인정됨 △봉사=최정은(국문3) 적극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점이 인정됨 등으로 개인별로 장학금 1백만원씩 주어졌다.

학군단 군사훈련 실시

본교 학군단(단장=박원근·중령)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 성남 중앙군사학교에서 전국 92개 대학 학군단 후보생 6천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기초군사교육과 동계임영훈련에 참여한다.

이번 군사 훈련은 △군인으로 가져야 할 자세 △군인 기본생활 △내무생활 체험 △육군기 체험 △전술훈련 등의 내용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대희 대위는 "군대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훈련과 실전훈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8일부터 겨울 특별강좌 개설

사회문화교육원(원장=임배근·경제학)은 오는 8일부터 '겨울특별강좌'를 개설해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사회문화교육원 교학관에서 접수 받는다.

강좌는 △성악(강사=박법철 교수, 강의시간=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모집인원=15명) △피아노(강사=최경숙 교수, 강의시간=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모집인원=30명) △유화(강사=최영조 교수, 강의시간=화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모집인원=15명) △어린이 영어교실(강

사=BONG-CHA SPENCER 교수, 강의시간=월요일에서 금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모집인원=20명) △발표력 지도자 교실(강사=차경환 교수, 강의시간=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모집인원=20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신설 강좌도 있을 예정이니 일반인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1일 오후 5시 30분 콩코드호텔에서 '사회문화교육원 발표회와 송년의 밤'을 가졌다.



기대감 ...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문무관에서 정시모집 전형 원서 접수가 진행됐으며, 오는 30일 총 1천3백35명의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박현호 기자 blue@mail.dongguk.ac.kr

동약로

한줄 짝?!



“야, 너 성적확인 했냐?”
 “아직, 근데 성적확인 하기 전에 강의평가 해야한다며?”
 “그러게 말이야, 귀찮는데. 언제 다하지?”
 성적확인을 하기 위해 실습실 컴퓨터 앞에 앉은 한 학생이 불면 소리를 해댄다.
 “야, 그냥 한줄로 표시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고민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그 학생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건넨다.
 친구의 말이 아주 좋은 생각인 양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곧바로 강의평가서에 있는 질문은 무시한채 ‘배우 좋음’이라고 쓰여있는 빈칸에 무작정 V표시를 한다.
 “어차피 그냥 막 하는데 이런 걸 왜 만들어 놓았대?”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질문은 또 얼마나 많다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뭐.”
 결국, 두 학생은 자신이 수강했던 모든 과목의 강의평가를 똑같이 작성한다.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의 질을 평가하는 온라인 강의평가 제도는 학생들이 참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강의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가 누적되고 신뢰도가 검증되면 결과를 공개하며, 교원업적평가에도 반영 할 예정이어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성의’하게 온라인 강의 평가를 하는 몇몇 학생들의 모습은 그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평가제가 아직 시행초기 단계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강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강의평가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잠시 편안하기 위해 ‘아무렵 어때?’라는 생각으로 작성한 강의평가가 질적으로 보장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해도 같은 태도로 평가를 할까?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질적으로 향상된 강의를 듣기 위해 진지하게 강의평가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민중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노동자 · 농민 · 학생 민생현안 해결 요구

2000년 한 해도 민중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제위기가 계속됐고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은 희생을 강요당했다.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노동자들은 울겨울 정리해고를 당했고 농민들은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밭을 갈아엎어야 했다.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고 남북관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통일을 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는 커녕 개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미군의 폭격과 독극물 방류를 방지하는 한미행정협정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민중들은 집회와 시위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를 총결산하는 ‘2000년 3차 민중대회’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전날인 지난달 9일 오후에 열렸다.
 중앙집회는 서울 종로공원에 수도권 지역 약 3천여명이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군축 실현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한일·한중 투자협정 체결반대, WTO시장개방 반대 △공공, 금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기업민영화, 해외매각 반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농축산물 제값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IMF 구조조정이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급증하는 실업자들, 빈민,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고통에 찬 심음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당한 현실, 자본과 권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문에 98년 IMF로 인한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 2단계 구조조정으로 백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경영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뒤로한 채 경제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종로공원에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0년 3차 민중대회'가 열렸다.

또한 전농 정광훈 의장은 “김대중 정권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나라를 망친 기업에는 농민에게 지원하는 150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날 열릴 예정이던 농민대회의 무산을 아쉬워했다.
 올해 농가부채로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농민이 늘었고, 시위의 강도도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12일 농어민부채탕감특별법이 타결되었지만 농민들은 상환유예가 배제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이번 특별법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농어민 부채문제 뿐만 아니라 52년 동안 민중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희생자를 낳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개혁을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개혁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와 함께 매항리에 미군의 폭격연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 역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생과한 경제위기주범 미국·김대중 정권 반대’를 모토로 열린 이번 2000년 민중대회는 변함없이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한 의결로 가득 찼다. 이번 민중대회를 보면서 민중들의 고통에 찬 소리가 기쁨에 찬 함성으로 바뀌는 새해 2001년 되기를 기원해 본다.

김현정 기자 telme@dongguk.edu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이다”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7월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가 결성되었고, 각 단체들의 단식농성도 이어졌다.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에서 활동 중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송두환, 이하 민변)은 지난 1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국가인권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민변 송두환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공언했던 보안법 개혁에 진척이 없어 연내 개혁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 민변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철야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농성 기간 중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집회를 가진 뒤 가두편지를 벌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시민단체들의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농성에도 불구하고, 53년 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지난해도 수많은 한총련 산하 대학 총학생회장을 정치수배자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여권이 거듭 밝혔던 국가보안법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인권대통령이라던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개혁의 논의마저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9일에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운 전망이어서 새해 국가보안법 개혁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000년 노동계 최대 화두, 구조조정 경제 쟁쟁, 노동자만의 책임?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구조조정 반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2차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상당수 대기업들을 포함시킨 만큼 대부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라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실직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매서운 칼바람 앞에 두 달 동안 약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채권단의 구조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부도 사태를 빚은 대우차 노조도 결국에는 구조조정 동의안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무더기 퇴출 사태를 빚은 건설업계 노동자들까지 일자리를 잃는 등 시간 약 80만 명이었던 실업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곳곳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각종 집회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지난달 16일, 서울역에서 ‘대량실업 양산하는 구조조정 반대와 실업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전국실업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 참가자들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주최한 전국실업극복단체 연대회의 오충일 대표는 “정부는 고용보험 적립과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미봉적인 단기대책에 불과해 실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정부, 재계, 언론이 한 목소리로 ‘노동자만 참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재계는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을 통해 △구조조정의 신속한 실천 △노동계 파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모두가 일정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노동자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조조정의 담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의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인력감축만이 구조조정의 전부처럼 외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당신들만 희생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낡은 경제구조를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구조로 바꾸는 구조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의 논리를 내세우기 이전에 부실기업 경영진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을 수 각 이해단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2000. 8. 22 ~ 12. 20)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 △5천만원 국제정보대학원5기
- △3천만원 행정대학원총동문회
- △2천2백50만원 한국R.F
- △1천만원 경화사사, 교원도(교원도한의원 원장), 구자선(신도), 김영미(호수한의원 원장), 노동일(동일한의원 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중흥해담총장, 법운스님(청통사 주지), 신동훈(신동훈한의의원 원장), 오수석(인보한의의원 원장), 이채중(저용한방병원), 정상신(정상신한의의원 원장), 정의환(대한불교정법원 원장), 조수원(안강부부한의의원 원장), 주승균(평강한의의원 원장), 최효정(동산한방병원 원장)
- △6백만원 김현수(김현수한의의원 원장)
- △5백만원 김경선(고양한의의원), 김병호(신도), 김인걸(행정대학원), 신경식(신정식한의의원 원장), 오순분(신도), 이재은(신도), 이점도(신도), 일반대학원총학생회, 임동진(문화예술대학원), 최명희(용하부부한의의원), 현소환(언문정보대학원 객원 교수)
- △3백27만2천28원 정상찬(동문)
- △3백만원 이장원(문화예술대학원), 정훈탁(문화예술대학원), 홍영식(컴퓨터공학과 교수)
- △2백94만7천836원 ARS인금액

- △2백61만7천623원 토론토동문회
- △2백50만8천555원 뉴욕동문회
- △2백50만원 이발우(신도), 최병선(신도)
- △2백30만2천원 이근호(신도)
- △2백10만원 이혜산(신도)
- △2백만원 권오규(권오규한의의원 원장), 김경호(영동한의의원 원장), 김동현(미술사학과 교수), 김석하(도인한의의원 원장), 김익진(명인한의의원 원장), 김홍진(양양한의의원), 남원기(남수한의의원 원장), 명남수, 문종성(산업기술환경경대학원), 박태우(박태우한의의원 원장), 배규순(행정대학원), 배성민(수양한의의원 원장), 손찬수(손찬수의의원 원장), 송상화(상화한의의원 원장), 안병선(행정대학원), 안병태(동산한의의원 원장), 윤귀화(신도), 이동희(대덕한의의원 원장), 이재은(백천한의의원 원장), 이태재(동문), 이현재(대송한의의원 원장), 임성철(동제한의의원 원장), 전홍철(홍천한의의원 원장), 정소영(소림한의의원 원장), 정혜도(정환의의원 원장), 정호기(정환의원 원장), 조구현(행정대학원), 조덕태(보생조한의의원 원장), 차정숙, 최혜숙(스님), 하정열(행정대학원), 현덕영(문화예술대학원), 홍순자(신도)
- △1백53만2천원 강용대(경영대학원), 김광택(경영대학원), 김병훈(경영대학원), 김시현(경영대학원)

- 원), 김용찬(경영대학원), 김중철(경영대학원), 박수홍(경영대학원), 양연준(경영대학원), 양용구(경영대학원), 우근식(경영대학원), 이대승(경영대학원), 이영식(경영대학원), 이재필(경영대학원), 지득호(경영대학원), 한영수(경영대학원)
- △1백50만원 교원도(교원도한의원), 김영기(신도), 박예순(신도), 우세구(신도)
- △1백27만7천원 이정숙(교직원), 조백동(교직원)
- △1백20만원 유혜경(스님)
- △1백9만676원 위싱턴동문회
- △1백8만원 이국환(교직원)
- △1백5만원 이근배(교직원)
- △1백2만원 김영애(신도), 함영숙(신도), 황규봉(신도)
- △1백만100원 임경연(신도)
- △1백만원 강순옥(행정대학원), 강원국(행정대학원), 강추자(신도), 고병익(신도), 광병창(신도), 김경숙(동문), 김경진(신도), 김기득(신도), 김길천(교육대학원), 김도엽(행정대학원), 김도응(동문), 김병주(신도), 김병태(신도), 김삼겸(동문), 김상욱(신도), 김상철(행정대학원), 김수찬(용주사 주지), 김승중(신도), 김양자(행정대학원), 김억순, 김연수(신도), 김영운(신도), 김용만(신도), 김용제(신도), 김은숙(스님), 김정숙(신도), 김정훈(신도), 김중건(신도), 김지복(신도), 김진수(신도), 김진조, 김진환(신도), 김한성(신도), 김현덕(경주병원), 김현숙(신도), 김효욱(신도), 남궁길자(신도), 류인표(동문), 마경석(행정대학원), 문영홍(행정대학원), 문진우(신도), 문진환(신도), 문정인(신도), 박경원(신도), 박기홍(신도), 박용하(신도), 박종국(행정대학원), 박종철(문화예술대학원), 박종한(행정대학원), 박지은(행정대학원), 박정영(행정대학원), 배명자(교육대학원), 변복구(신도), 코모도호텔(부산), 불교어머니회, 서진자(신도), 상낙영(신도), 손금숙(신도), 송광수(불교대학원), 신옥선(신도), 송상열(신도), 안정운(신도), 오두석(신도), 유관진(신도), 윤동화(신도), 윤선호(신도), 윤성이(생명지원대 교수), 윤유태(동문), 윤철규(행정대학원), 이경자(신도), 이광호(동문), 이극태(신도), 이규현(신도), 이남기(신도), 이덕준(신도), 이묘선(신도), 이범산(선학과 교수), 이선자(스님), 이성운(불교대학원), 이순덕(신도), 이순희(신도), 이승남(신도), 이영순(신도), 이영실(신도), 이정례(신도), 이창학(교직원), 이태운(신도), 이형단(스님), 임종성(신도), 임주봉(신도), 임태평(철학과 교수), 장규운(행정대학원), 장득재(신도), 장명진(신도), 장민(신도), 장은필(신도), 전경순(신도), 전재근(신도), 정영석(신도), 조용남(신도), 조원봉(신도), 조정환(행정대학원), 주의영(행정대학원), 지원교(신도), 진성천(대덕암 주지), 채세희(신도), 최동만(신도), 최문규(교직원), 최성위(신도), 홍금자(신도), 홍명희(행정대학원), 홍범식(신도)
- △90만원 이상원(교직원)
- △85만원 김규환(교직원)
- △80만원 김광희(교직원), 불광법회불자일동
- △78만원 이경식(교직원)
- △74만원 서병학(신도)
- △70만원 김호영(신도)
- △66만원 김종기(교직원)
- △65만4천406원 달라스동문회
- △60만원 김병중(교직원), 신기훈(교직원), 임병학

- (신도), 최기석(교직원)
- △54만원 안병균(신도)
- △51만원 강종필(교육대학원), 광희리(교육대학원), 김경순(교육대학원), 김귀자(교육학원), 김도영(교육대학원), 나현주(교육대학원), 류혜경(교육대학원), 변주현(교육대학원), 염수을(신도), 오찬숙(교육대학원), 이용민(교육대학원), 이용주(교육대학원), 이혜숙(교육대학원), 최은희(교육대학원), 홍현(교육대학원)
- △50만원 광덕순(신도), 김말자(신도), 김미애(신도), 김신영(신도), 남우희(행정대학원), 두좌연(신도), 문상국(교직원), 박병선(신도), 박훈선(교직원), 성춘광(행정대학원), 신병배(교직원), 신우희, 안정선(교육대학원), 엄기문(교직원), 오성근(교직원), 윤분선(신도), 이명현(산업기술환경경대학원), 이명호(교직원), 이재용(신도), 임옥녀(신도), 전삼수(신도), 조순식(교직원), 차영만(행정대학원), 최복락(행정대학원), 최영자(신도), 홍중후(산업기술환경경대학원)
- △46만3천원 정영애(신도)
- △43만6천270원 밴쿠버동문회
- △40만원 김윤수(교직원), 노재연(신도), 박종용(신도), 최재열(신도)
- △36만원 팔달사
- △32만7천203원 샌프란시스코동문회
- △30만원 김현섭(행정대학원), 김복련(교직원), 김완동, 동국대학교유체국, 류종기(교직원), 문수진(신도), 박익수(산업기술환경경대학원), 설함미(교직원), 손병희(경주병원), 이원재(신도), 이창국(산업기술환경경대학원), 이창섭(신도), 차경애(산업기술환경경대학원), 황장성(신도)
- △25만원 장순례(신도)
- △24만원 김성기(신도), 박일원(신도), 박종남(신도), 이종갑(신도), 현노을(행정대학원)
- △22만원 용수식(신도), 임정자(신도)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

논단

범세계적 연대활동으로 일본사죄 받아내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새 장이 마련되었다. 일본왕 히로히토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는 여성국제법정과 '최근 무력갈등하의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공청회'가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도쿄 구안회관에서 열렸다.

성노예 전범 유죄선고

여기에는 피해자인 남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와 가해국 일본 등 총 9개국이 참가했다.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의 '전사자 여성폭력 네트워크(VAWW-NET)', 필리핀의 '여성인권을 위한 아시아센터(ASCENT)'의 대표로 구성된 국제조직위원회가 2년여에 걸쳐 준비한 법정에는 마침내 전후 처음으로 일방을 비롯한 일본 고위 관계자 전범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과거를 이룩했다.

이 법정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세계여성연대로 여성인권을 위한 최초의 모의법정으로 가해국과 피해국이 함께 했고, 피해 여성은 물론 남녀 전문가, 활동가가 함께 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피해자 증언과 전문가 증언에서 '일본군위안소의 구조'와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흔'이 온 천하에 공개되었다. 이 법정을 위해 새로운 자료들이 조사됐고 더 많은 전문가, 증언에 의해 세계적인 홍보가 가능하였다. 그들은 사진, 지도, 문서 자료, 참고 문헌 등을 제출하면서 일제의 죄를 고발하였다.

남북한 공동 기소

둘째, 남북한의 공동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환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한국검사대표의 발언에 이어 남북한이 본같이 당시 일왕 히로히토와 도조 히데키 총리 및 군장성의 죄상을 국가 책임과 개인 책임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더욱이 이 일에 재일 한국인 동포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 한민족으로의 감동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셋째, 가해자 일본군인이 각각 피해자

양에서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들은 전시 군인에 의한 여성강간의 실태에 대해 용기를 내 어쩔사리 증언했다. 일본군은 중국 여성을 강간하면서도 죄의식은커녕 군인은 점령지 여성들로부터 당연히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이들로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넷째, 네덜란드인 피해자와 당시 피해 여성으로 공식 석상에 처음 나온 동티모르의 증인, 국제 공청회의 증인 등 많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엄청난 진실들이 속속 역사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밖에 세계 인권의 날 기념 문화의 밤, '세이 에스' 콘서트나 비디오 상영 등 문화행사를 통해 인권과 사회 정의에 대한 다양한 연술이 모색되었다. 아시아 각국의 전통 춤과 민속 노래 등은 참가자들을 하나로 묶었다.

일본 정부에 정치적 압력 가해야

그렇다면 법정 이후의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직접 동참하는 여성인권 단체뿐 아니라 세계의 폭넓은 여성들의 힘이 일본 정부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신영숙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

특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유엔 인권 소위 등 국제 기구의 압력은 물론 민간 여성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남성을 포함한 시민운동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여성 단체와 일본 여성의 정치적 힘을 모으고 더 나아가 세계 여성이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여성인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야당인 민주, 공산, 사민당 등이 제출한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의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심의 제정과 미국, 일본에서 현재 진행중인 개인 피해 보상 재판 등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데 한국과 다른 피해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법적 증거 자료조사를 돕는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돕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인가.

하루 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사회, 보상의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노근리 사건과 한미관계

'역사적 진실' 보다 '정치적 타협' 인가

노근리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남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 더욱 커져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분노다.

피해자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50년 전 여痛的 기억과 싸우고 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다 때밀리다시피 진상조사에 나선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사건인 노근리 사건의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의가 지난달 20일부터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매듭지어 졌다. 양국은 그 동안의 진상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견접근을 보였지만 핵심쟁점 가운데 조직적인 발표명령 부분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공동발표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노근리대책단은 완벽한 해결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노근리 문제가 한미 우호관계에 끼칠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에 노근리 양민학살대책위 정구도 대변인은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진실을 지켜내려는 의지를 보이리"고 촉구했다.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부의

의지전명에도 불구하고 노근리의 진실이 자칫 한·미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협상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근리 학살사건을 둘러싼 한·미간 쟁점은 △지휘부의 명령계통을 통한 조직적 학살여부 △민간인 학살의도의 고의성 △미국 정부의 사과와 보상문제 등이다.

미 국방부 조사단은 노근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학살은 인정하되 상부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지휘부에 의한 조직적인 발표명령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합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각국이 조사한 결과만을 보고서에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조직적 학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 도출의 어려움을 표명했다.

노근리 사건 자문위원 서울대 정진성 교수는 "정부가 피해자를 단지 조사대상으로 대하면서 미국과의 공조관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근리 사건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는 정부가 미국쪽에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난 워싱턴 회담에서 사건 수습 대책의 하나로 노근리 지역에 위령탑을 건립하고 장학금을 조성해 연간 10명 안팎의 장학생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정은용 노근리대책위원장은 "노근리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정치문제 제로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근리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휘계통을 통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학살'임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문서기록과 '삼급 지휘본부로부터 노근리에서 피난민들에게 발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증언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런데도 미국이 굳이 은폐, 축소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이면에 미국 우월의식에 따른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주권국가로서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보여진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사설 동국발전과 나 또 한번 새해 새아침을 맞았다. 2000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세상 모든 것들이 잠미빛으로 바뀌는 지상낙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난 한 해를 열심히 살았건만 세상은 별로 변해주지 않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시련'을 극복했다더니 웬걸? IMF보다 더한 총체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멀쩡하던 대기업들이 줄지어 쓰러져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한몸 바치겠다던 정치인들은 예나 다름없이 소아병적 당리당락 투쟁에만 골몰하여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밥대로 되는 일도 없고', '원칙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 집단'의 작은 이익이라도 확보하려면 믿을 것은 오로지 물리력밖에 없다며 의사도 약사도 은행원도 조종사도 파업, 또 파업만 하는 희한한 한 해를 보냈다. 따라서 올해는 2001년, 진짜 21세기가 시작되는 해라면서, 왜 그랬듯이 이런 자리를 상무적 덕담,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메우고 싶지는 않다. 한국사회의 한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동대의 지난 일년은 어떠했었나를 돌이켜 본다.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었지만 그러저럭 슬기롭게 대처하여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미시령에서 일어난 새터사고나 핵불사건은 수습과정에서 오히려 동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순기능도 있었다. 등록금 협의 과정에서의 본관점거농성, 경주캠 총학생회의 혼란, 생협 독립법인 추진과정에서의 진통 등은 다른 대학들과 함께 겪은 횡단사였다. 하지만 익명의 독자기자들의 거액기부를 포함하여 불황속에서도 꾸준한 발전기금모금이나 근대들이 크게 행한 행사·사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나 영전을 거둬들이며 부각되는 졸업생들의 활약상은 오히려 타 대학과 차별되는, 상서로운 동국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범상치 않은 일들이었다. 내친 김에 역설해 본다면 올해에 이룩해야 할 동국의 가장 큰 사업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불교계에 크게 공헌하면서 동시에 동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의과대학·한의과대학부속 일산병원의 완공이다. 다른 하나는 내대적으로 부족한 공간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제2도서관의 건립이다. 세상에겐 애써 일을 추진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산적·창조적 작업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매사에 회의적·비관적으로 만족 걸기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부류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비교적 일치하는 반면에 뒷부류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는커녕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하루를 못 버티고 당장 국가부도라도 날 것 같은 우리 사회가 이정도로나마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앞부류의 사람들이 '말 없는 다수'로서 자기 분야의 맡은 바 역할을 톡톡히 해 주고 있는 덕이리라. 그렇다면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자명해진다. 그것은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믿음의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불행한 것은 한번 무너져 내린 믿음의 탑을 새로 쌓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방법은 아주 쉬워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줄이고 실천을 많이 하면 된다는 사실이다. 이 간단한 방법 실행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소리(小聲)·소아(小我)를 버리고 보다 큰, 보다 높은, 보다 넓은 대승적 이타행(大乘의 利他行)을 지향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굳이 미담의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최후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최후로 책임질 것을 책임지'라는 교육을 받은,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인 아니던가? 긴 말이 필요없다. 올해는 나부터 양장서서 병원을 위해 도서관을 위해 베풀 한 장이라도 쌓고 등집 한방이라도 지자. 이러한 동국인들의 작은 실천이 모이고 쌓일 때 동국발전은 앞당겨질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몸에 익힌 동국인들이 사회에 나가면 삶에도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로 추앙받게 될 것이다. 새해 새아침, 모든 동국인들의 건승을 빌어본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6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 주간 백승석 편집장 김성관 편집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만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8-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20만원 강성태(신도), 고순업(신도), 권귀래(신도), 권명조(경주병원), 권선규(신도), 권선방(신도), 김상민(동문), 김정숙(신도), 김정희(신도), 나병철(신도), 도은스님, 박기정(신도), 박여진(신도), 박영자, 박영희(신도), 박효성(신도), 송상범(신도), 심세구(신도), 안우섭(일반외과 교수), 연상희(신도), 오두진(신도), 유건형(신도), 윤말순(신도), 이강숙(신도), 이노미(신도), 이만덕화(신도), 이상희(신도), 이영일(신도), 이준우(신도), 임일규(신도), 전경자(신도), 전봉문(신도), 정하영(신도), 조강애, 최병문(산업기술환경대학원), 최재근(신도), 하인순(신도), 한민희(신도), 허진옥(신도), 홍명수(신도), 황규석(신도)
- △17만원 이명용(신도)
- △16만원 이용선(신도)
- △15만원 문일룡(산업기술환경대학원), 양성규(신도), 최정철(신도)
- △14만1천원 박현숙(신도)
- △12만원 김철섭(신도), 박규호, 이영희(신도), 이영주(신도), 이희순(신도)
- △11만원 이관영(신도)
- △10만5천원 이명자(신도)
- △10만원 강양순(신도), 고명순(신도), 구보인생(신도), 금창진(신도), 김덕선(신도), 김성권, 김순(신도), 김순예(신도), 김연수(신도), 김용진(행정대학원), 김정 훈(신도), 김준민, 김현수(신도), 남정순(신도), 노기서, 류상연(신도), 박동연(신도), 박병수(신도), 박순이(신도), 박영준(신도), 박인순(신도), 박종래(신도), 박정용(신도), 박희열(산업기술환경대학원), 변성춘(동문), 변지경(신도), 서상배(신도), 서승재(신도), 성철호(신도), 송계용(신도), 송모각삼(신도), 송영분(신도), 신철오(신도), 양복우행(신도), 양해성(신도), 엄재호(신도), 여환중(신도), 오문희(신도), 우진남(신도), 유재복(신도), 육철수(신도), 윤순남(신도), 윤용환(신도), 이동삼, 이봉희(신도), 이성관(스님), 이순복(신도), 이순애, 이옥순(신도), 이재복(신도), 이재철(신도), 이정수(신도), 이종환(신도), 이해진(신도), 임광호(신도), 임유이(신도), 장경배(신도), 장석열(신도), 전정숙(신도), 정세영(신도), 정정자(신도), 조규은(신도), 조만환(신도), 조말복(신도), 지영진(신도), 최관용(신도), 최소영(신도), 최승희(신도), 최윤숙(신도), 한병희(신도), 해탈삼(신도), 허단, 허두환, 현상명(신도), 현상진(신도)
- △9만원 박기순(신도), 박민정(신도), 박옥주(신도), 윤용대(신도)
- △8만원 김병수(신도), 유대화(신도), 황성문(신도), 황창오(스님)
- △7만원 김지홍(신도), 정길재(신도), 정희순(신도)
- △6만원 김용이(신도), 나호준(신도), 백기홍(동문), 조용인(신도), 홍순아(신도), 익명, 강계동(신도), 권영준(신도), 김경미(교직원), 김성중(신도), 김옥도(신도), 김인덕(신도), 김주식(신도), 김주호(신도), 김태용, 노승순(신도), 묘상스님, 박남예(신도), 손흥현(신도), 송지섭(신도), 신경복(신도), 심명환(신도), 심명순(신도), 유흥석(신도), 육훈순(신도), 윤진영(신도), 윤창수(산업기술환경대학원), 이경수(신도), 이상분, 이준희, 장은석(신도), 정영자(신도), 최영목(신도), 최철철(신도), 한상건(신도), 황규순(신도), 익명
- △4만2천원 익명
- △4만원 강병권(신도), 강병기(신도), 권혁제(동문), 김모란(신도), 안효현(신도), 양형진(신도), 오근석, 전성수(신도), 차은자, 황배영(신도)
- △3만원 강덕인(신도), 공배선(신도), 김경남(신도), 오문희(신도), 우진남(신도), 유재복(신도), 육철수(신도), 윤순남(신도), 윤용환(신도), 이동삼, 이봉희(신도), 이성관(스님), 이순복(신도), 이순애, 이옥순(신도), 이재복(신도), 이재철(신도), 이정수(신도), 이종환(신도), 이해진(신도), 임광호(신도), 임유이(신도), 장경배(신도), 장석열(신도), 전정숙(신도), 정세영(신도), 정정자(신도), 조규은(신도), 조만환(신도), 조말복(신도), 지영진(신도), 최관용(신도), 최소영(신도), 최승희(신도), 최윤숙(신도), 한병희(신도), 해탈삼(신도), 허단, 허두환, 현상명(신도), 현상진(신도)
- △9만원 박기순(신도), 박민정(신도), 박옥주(신도), 윤용대(신도)
- △8만원 김병수(신도), 유대화(신도), 황성문(신도), 황창오(스님)
- △7만원 김지홍(신도), 정길재(신도), 정희순(신도)
- △6만원 김용이(신도), 나호준(신도), 백기홍(동문), 조용인(신도), 홍순아(신도), 익명, 강계동(신도), 권영준(신도), 김경미(교직원), 김성중(신도), 김옥도(신도), 김인덕(신도), 김주식(신도), 김주호(신도), 김태용, 노승순(신도), 묘상스님, 박남예(신도), 손흥현(신도), 송지섭(신도), 신경복(신도), 심명환(신도), 심명순(신도), 유흥석(신도), 육훈순(신도), 윤진영(신도), 윤창수(산업기술환경대학원), 이경수(신도), 이상분, 이준희, 장은석(신도), 정영자(신도), 최영목(신도), 최철철(신도), 한상건(신도), 황규순(신도), 익명
- △4만2천원 익명
- △4만원 강병권(신도), 강병기(신도), 권혁제(동문), 김모란(신도), 안효현(신도), 양형진(신도), 오근석, 전성수(신도), 차은자, 황배영(신도)
- △3만원 강덕인(신도), 공배선(신도), 김경남(신도), 오문희(신도), 우진남(신도), 유재복(신도), 육철수(신도), 윤순남(신도), 윤용환(신도), 이동삼, 이봉희(신도), 이성관(스님), 이순복(신도), 이순애, 이옥순(신도), 이재복(신도), 이재철(신도), 이정수(신도), 이종환(신도), 이해진(신도), 임광호(신도), 임유이(신도), 장경배(신도), 장석열(신도), 전정숙(신도), 정세영(신도), 정정자(신도), 조규은(신도), 조만환(신도), 조말복(신도), 지영진(신도), 최관용(신도), 최소영(신도), 최승희(신도), 최윤숙(신도), 한병희(신도), 해탈삼(신도), 허단, 허두환, 현상명(신도), 현상진(신도)

- △2천원 익명
- 발전기금
- △1백만원 남윤석(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이연택(동문)
- △50만원 전주진(교직원), 홍성란(일반대학원)
- △40만원 김영희(지역개발대학원), 장병수(일반대학원)
- △30만원 김춘하(동문), 정장식(포항시장)
- △20만원 김순희(동문), 이정봉(지역개발대학원)
- △10만원 교직원총회
- △6만원 이정민(신도)
- △3만원 차성부(신도)
- △2만원 전성수(신도)
- △1만원 전수련(신도)
- 장학기금
- △8백21만4천원 아주하이텍
- △6백40만원 에스원
- △5백만원 조태래(동문)
- △3백만원 캡스
- △2백만원 경찰행정학과동창회, 한신종합건강진단센터
- △1백50만원 한국경호경비시스템
- △1백만원 (주)정우&W, 손창수(동문), 전산방법시스템POCOM, 진현섭, 최연표(행정대학원), 한국FLY-ASH시멘트공업, 혁신전공사
- △50만원 대영축산설계공사, 초야농장
- △4만430원 황우열(교직원)
- △3만2천60원 이법산(선학과 교수)

- △2만5천880원 김진환(교직원)
- △2만4천940원 류인수(교직원)
- △2만1천120원 조병복(강원대 교수)
- △1만9천230원 선상규(교직원)
- △1만7천90원 박세훈(교직원)
- 특정목적기금
- △6천만원 세종증권
- △3천만원 지역개발대학원총동창회
- △2천만원 (주)참조
- △1천2백만원 정준기(선학과 교수)
- △5백만원 이태근(한방방인과 교수)
- △2백만원 김중대(한방내과 교수), 명남수, 윤종화(한방침구과 교수), 윤철호(경주한방병원), 정승현(경주한방병원), 체대석(국제통상학과 교수)
- △1백만원 경주한방불교회, 김철호(한의학과 교수), 서윤교(한방내과 교수), 손행철(간호학과 교수), 오인욱(간호학과 교수)
- △50만원 최윤진(교직원)
- △20만원 박현숙(지역개발대학원)
- △10만원 김지연(동문)
- △8만원 황운철(지역개발대학원)
- 단위기금
- △1백만원 김세택(객원교수)
- △2만원 김병수(신도)
- △1만원 김미자(신도)
- 기금접수 ARS 안내
- 7000 - 119
- (서울, 경기도 제외한 지역은 (02)7000-119로 하시면 됩니다.)
- 금 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1일 중복되는 것은 1회만 인정)
-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2260-3300, 2260-3791-5

도약하는 동국, 변화하는 동약

“21세기형 도서관이 다가온다”

열람실 4천석 확충 첨단시설 경비까지

학내 공간활용 문제와 건물내 공간 배치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도서관(가칭) 공사가 운곽을 드러냈다.

현재 강의동과 학군단 건물이 있는 곳에 위치할 부채꼴 모양의 도서관은 760평의 부지에 지상3층 지하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도서관은 학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점 때문에 건물 내 공간배치를 하는데 많은 이목을 끌었다.

총 6개 층으로 이루어진 도서관 건물은 열

람실을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할 예정이며, 자료실·멀티미디어실·정보검색실·음향도서실·휴게실 등이 들어간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열람석이 4천500석에 불과했던 기존 도서관보다 약 2천석에서 2천500석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사무처(처장=황영수) 시설관리팀 이천중 팀장은 “도서관을 계획할 당시 전자도서관이나 개가식 도서관으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중앙 도서관에 열람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열람석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의 냉·난방 시설을 온풍식으로 하여 중앙도서관에서 스팀이나 에어컨 작동시 유발했던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각 층에 온도를 감지 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1년 내내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게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열람실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최신 통신 장비와 시설을 갖춘다. 이 밖에도 건물 옥상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하3층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공간 효율



현재 강의동과 학군단 건물이 있는 곳에 세워질 '도서관(가칭)'의 투시도

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황영수 사무처장은 “단지 공부만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학생들이 쉬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시설뿐만 아니라 전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도서관 공사로 강의동과 학군단 건물이 폐쇄되면 12개의 강의실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흥관 뒤쪽에 원흥별관을 세워 해결 할 계획이며, 원흥별관에는 학군단과 학군단 전용강의실 2개를 포함해서 총 4개의 강의

실과 실험 실습실 2개가 배치된다.

시설관리팀 김계현 과장은 도서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원흥별관 신축 후에 곧바로 착공할 계획이며, 대략 그 시기가 여름방학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의실, 연구실, 학생자치공간 등 학내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 신축은 학내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2001년

학교에 바란다

- △대학순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자.
- △취업경쟁에 풀머리 양기보다는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 △2001년 새터 가고야 만다. 내 앞 길을 막는 자 누구냐?
- △요즘 들어 도서관 도서 검색기가 자주 다운이 되더라구요.
- △강의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세요.
- △등록금 인하!!
- △학생회관이나 학림관에도 매점을 설치해 주~
- △재외국민 부정입학 진상을 밝혀라.
- △도서관을 졸업생에게도 개방하라.
- △기숙사 세워줘요.
- △너무 추운 강의실이 많습디다. 따뜻한 난방을 부탁.
- △사물함 좀 바꿔주세요.
- △자리부족 문제 심각합니다. 도서관 증축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 △건물 옥상에 체육시설 설치해 주세요!
- △학교 건물마다 페인트칠 해 학교 분위기를 산뜻하게! 본관과 혜화관 색 별투...
- △어정정한 75분 수업, 원상 복구하라.
-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 △0.5교시 수업이 없어졌으면 해요.
- △교양 강좌를 좀 더 확대해줘요
- △도서관에 책을 더 많이 늘려주세요.
- △기독교 동아리 인정해 주세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 △도서관에 왜 책이 없나요? 신간도 빨리빨리~
- △우린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자유가 있다. 신청할 때마다 정원 초과라니 허~



업그레이드 동약

중앙정원 외 학내곳곳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나은 공간에서'라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회사가 사원들이 답소를 나누고, 족구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건물 옥상에 만들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사회뿐만이 아니라, 대학가에도 나타나고 있다. 본교 역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명진관 앞 중앙정원은 분수대를 없애는 등 대폭적으로 변화를 시킬 계획이다. 먼저 분수대가 놓여있던 중앙정원의 한 가운데 본교의 상징인 코끼리상이 놓이게 된다. 분수대를 메운 후 얇은 연못을 만들어 그 위에 설치하게 되는 이 코끼리상은 현재 조승환(미술학) 교수가 제작 중이며 개교기념일인 5월 8일에 제막식을 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정원 주변의 플라타너스 나무 뿌리가 지하 배수로로 막아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여 통행에 불편을 겪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타너스는 물론, 여러 종류의 수목들을 소나무로 대체한다.

또한 중앙정원 주위의 아스팔트 도로를 화강암을 재료로 한 고품스런 돌길로 바꾸고, 나무 아래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는 등 가로등을 늘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팔정도 주변 턱을 높

여 학생들이 오고가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도서관 앞 쉼터공간에 단풍나무 그늘을 만들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관리팀 김계현 과장은 “중앙정원의 새 구조는 학생들이 자연을 좀 더 가깝고 친밀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라며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학생들에 의해 사용되던 체육관 지하 공간이 새롭게 단장된다. 무용실, 유도장, 태권도장으로 활용돼 오던 공간을 샤워실, 탁구실, 운동기구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로 만들어 스포츠 관련 교양 강좌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이용하기 쉽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현재 VTR, 스캐너와 같은 디지털 장비를 갖춘 영상강의실이 전체 강의실의 약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곧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관리팀 이천중 팀장은 “그동안 300명 이상이 사용하는 대형 강의실 위주로 디지털 장비를 구비했으나, 앞으로는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의 강의실이라도 장비를 필요로 하는 강의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동국관 옥상을 정보문화관 옥상이나 혜화별관과 같이 자연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불교종합병원 ... 불교종합병원이 지난 99년 공사를 시작한지 약 1년 만에 전체적인 형태를 드러냈다. 약 30%정도 완료된 병원 공사는 현재 12층까지 철골공사를 모두 마쳤고 건물 외장공사와 내부 미장, 배관공사를 진행중이다.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사물함도 명진관부터 단일모델로 규격화하여 교학과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계속적으로 공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공간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시설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넉넉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획부
imperial@dongguk.edu

동대문학상

시부문 장원 수상작

깨밭에서

유재하 (문과대 국문4)

깨 쏟아진다는 말
눈물 쏟는다는 말이더군요

낫질마다 죽창 날카로운 끝을 보이는 깨나무도 실은
견드리면 울음을 털어 내는 새색시 닳아놔서
땀결름 베다보면 사염니 앓고 나간 자리처럼 땅 위엔
며느리의 못다한 말들이 깨알처럼 흩뿌려져 있더군요
비바람에 흔들리던 풍경(風磬)같이 훌거운 알껍질들
손닿을 때마다 부르르 떠는 줄만 알았는데
저들끼리 뭉실 맨 슬데없이 앙탈부리는 것들 먼저
떨어내는 법을 깨닫게 해 주더군요
이렇게 깨밭에서 깨를 걷다보면
조잘거리며 입방아 찧는 녀석들!
모두 땅으로 떨어져 돌아가고
털러기 전까지 참지 못하는 녀석들!
손 미치지 못하는 길바닥으로 사라지게 되더군요

아까워라
몸조심 손조심하며 깨를 걷다보면
남는 것보다 버려야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
깨 쏟아진다, 할 때마다
눈 속에 감춰두었던 깨기름을 짜내듯
눈물을 쏟는다, 해야 하더군요

시부문심사평

일상의 사소한 담론을 형상화

당선작으로 올린 '깨밭에서'를 보여준 유재하의 시들은, '풍도목' 같은 어설픈 제목의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단단하게 잘 짜여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시쓰기의 훈련도 꽤 거친 것으로 보이는 그의 시들은 일상의 사소한 담론들을 전혀 사소하지 않게 보여준다.

비를 누군가가 줄줄이 줄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도 그렇고 '한번쯤은 스스로를 말려야 함을 가르친다'라고 빨래집게를 의미화한 사실도 그렇다. 특히 당선작 '깨밭에서'는 깨 쏟아지는 것이 눈물 쏟아지는 것이란 명제를 씩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그의 앞날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작품 '목마른 계절'(신정민)은 이 작자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정황의 세부를 감각적으로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같은 대상을 감각적으로 특화(特化)시킬 줄 아는 능력은 시쓰기의 한 기본기로 그만큼 믿음직스러운 것. 그러나 아직은 글감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일이 다소는 서툰 듯 해서 앞으로의 분발을 부탁하고 싶다.

이 밖에도 조종래의 '비닐봉지'가, 비록 소품이긴 해도, 그 단단한 틀 때문에 선자의 관심을 끌었으나 앞으로의 다음 작품들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끝으로 응모작 전반이 여는 해보다는 높은 수준들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심사에서의 즐거움을 한결 더해 주었던 사실도 밝혀 두기로 한다.

홍신선
문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시인

제15회 동대문학상 입상작

◆ 시부문

장원 깨밭에서
유재하 (문과대 국어국문4)

가작 목마른 계절
신정민 (인문과학대 인문학부2)

◆ 소설부문

장원 입상작 없음

가작 귀머거리 앞에서 방울을 흔들다
김선경 (문과대 문예창작4)

◆ 평론부문

입상작 없음

◆ 심사위원

시 부문 홍신선 (문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소설부문 장영우 (문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평론부문 장영우 (문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수상소감

시쓰기, 삶의 일부임을 깨달아



유재하 (문과대 국문4)

이제 막 시작법(詩作法)에 눈뜬 부족한 작품들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제 입을 벗어난 외침들을 한 그릇에 담지 못하다가, 비로소 시쓰기 또한 성실하고 철저해야 하는 삶의 일부임을 깨

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답시고, 제 주변에 대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시가 어느 순간 공소하고 허망한 것으로 잊혀지지 않기 위해, 다분히 기술로 익혀서는 오래 남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약속으로 그 소홀함을 대신해 봅니다.

매주 2편의 시를 읽어준 시분과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말없이 지켜봐 주신 아버지, 그리고 수배 중 여러날 학생회관 앞에 쓰러지셨던 어머니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매서워지는 겨울 더욱 깊은 심지를 돋우는 마음으로 시를 쓰겠습니다.

시부문 가작 수상작

목마른 계절

신정민 (인문과학대 인문학부2)

병든 침엽수림의 잎처럼
시월의 비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했다
라디오에는 흐린 가을만큼이나 남은 노래가
사연의 끝을 타고 흐르고
나는 더 이상 편지를 잊지 못했다
시간이 굴절된 채 지나갈수록
오래된 감기 약으로 나온 기침이
목안에서 웅얼거렸고
백열구의 끊어진 필라멘트 빛 속으로
잊혀져야 할 기억들이 걸걸거리며
나이에 안쪽에서 기어왔다

키가 자라지 않을 무렵 절망은
음습하게 키를 키워 시린 그림자로 따라다녔고
꿈은 자석 붙인 나침반처럼 방향을 잃어
이따금 주저앉고 싶음의 경계에 데려다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마른 잠이 들기도 했다
마른 잠 속에서 다시 꾸벅 졸기도 했다
흐린 시월은 침묵으로 나를 둘러싸고
고인 빗물위로 병든 비가 다시 내린다
젖지 않는 잠에서 난 빨리 이 계절을
떠나고 싶었다



소설부문
가작 수상작

귀머거리 앞에서 방울을 흔들다

제15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수상소감

끝없는 반성을 지침으로



김선경 (문과대 문예창작과)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대학을 졸업한다. 취업이나 졸업 후의 계획은 접어두고 이 소설을 쓰는 데에만 매달렸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다. 이번 소설에서는 사회가 한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부족한 경험과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문학적 성취를 시도하려는 재능 없는 작가는 '단순히 도식적이고 상투화된 표현에 머무르고 말게 되기 쉽다'는 것이 내가 글을 쓰는데 있어서 지침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번 소설이 도식적이고 상투적인 글은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해본다. 부족한 글을 열심히 읽어주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원규, 이상문, 장영우, 황종연, 이남석, 정성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병식 선배와 은주 언니, 근영, 상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여러모로 미숙한 내 글을 뽑아준 장영우 선생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쓰겠다.

보냈다. 남자는 제멋대로 그것을 텔레비전 옆에 놓았다. 전화선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편리하다는 게 그의 변명이었다. 빈방이 두 개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를 뒤 여자는 파출부에게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갖다주라고 말하며 구 컴퓨터와 책상, 프린터를 모두 없애버렸다. "무슨 편지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자는 꽤 오랫동안 편지를 들고 있었나 보다. "별거 아니에요. 모래 저녁이나 먹자고 하네요."

파출부는 뭔가 다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듯 계속 표정을 살핀다. 때마침 세탁기에서 종료를 알리는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여자는 세탁기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파출부가 이 집에 드나든 것은 일년 남짓 된다. 일요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들어서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일한다. 청소와 빨래 따위의 집안일과 장 봐오는 일을 대신해준다. 여자와 아줌마가 말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몇 개월 되지 않는다.

여자가 집에서 깨어났을 때, 부엌에서 똑똑똑각 규칙적이고 경쾌한 칼질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방밖으로 나가보니, 아줌마가 식탁 위에 도마를 올려놓고 쥘 손놀림으로 당근을 채 썰고 있었다. 식탁에는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와 파, 마늘, 고추, 양파, 멸치 액젓 따위가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배추가 좋더라고요. 사다먹는 건 별로 맛있잖아요."

아줌마는 평소 여자가 반찬을 사먹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여자가 반찬을 사먹든 말든 파출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아줌마가 김치를 담근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다. 딸이 중간고사에서 반 일했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식들의 과외비를 버느라 파출부 생활을 시작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아들과 딸을 한 명 씩 두었다. 딸은 중학생인데 커서 야생화 연구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한다. 초등학교생 아들은 컴퓨터 오락에 정신이 팔려있는 게 문제지만 집안 일은 골질 도와준다. 남편은 성실하지만 하지만 돈은 그리 잘 벌여오지 못했다.

김치는 맛이 좋았다. 여자는 감사의 표시로 수고비에 이만원을 더 보내주었다.

여자는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처럼 느릿하게 눈꺼풀을 움직인다. 조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숨을 쉴 때마다 흠이불이 미세하게 들썩이고 이따금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을 제외하면 움직임이라고는 거의 없다.

여자는 꿈을 더듬고 있다. 큰 나무에 복권이 피어난 듯 비둘기들이 앉아 있다. 비둘기들이 가슴을 불룩이더니 일제히 날아오른다. 아이가 여자에게 수선화 한 다발을 안겨준다.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배우와 비탈진 벼랑을 따라 걸으며 사랑을 속삭인다. 여자는 타로 카드로 점을 치듯 마치 암호와도 같은 꿈을 해석해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문 밖에서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다. 그 소리는 조금씩 여자의 뇌를 잠식하더니 상념을 방해하고 만다. 여자는 슬며시 눈살을 찌푸린다.

소음이 그치고 방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이어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들어와도 돼요. 여자는 문 쪽으로 돌아눕는다. 파출부가 들어와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자 빛이 쏟아진다. 동시에 여자는 손등으로 빛을 가린다. 윤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얼굴과 비쩍 마른 팔은 흡사 고행자를 연상케 한다.

여자는 일어나 잠옷 차림으로 방을 나온다. 약간의 현기를 느끼는지 이마에 손을 대고는 비척거리며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는 사이 다시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는 듯 청소기가 요란한 소리를 낸다. 청소가 끝나갈 기다리며 집안을 둘러본다. 여기저기 널려있던 물건들은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고 못 보던 화분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다.

"떡을 것 좀 만들까요?" 어느새 청소를 끝마쳤는지 파출부가 여자 곁에서 있다. "뒤편이요?" 여자는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가리킨다. "에쁘죠. 전에 말씀드렸죠? 딸애가 야생화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어제 집에 화분을 몇 개 가져왔더라고요. 사모님한테도 하나 갖다주려고 해서." 파출부는 거실에서 화분을 가져온다. 질그릇처럼 생긴 작은 화분에는 가을 들녘에서 본 적 있는 연분홍 빛깔의 꽃이 다섯 송이 피어 있다. 가

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는 아찔할 정도로 강한 향기가 배어 있다. 꿈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주 혼동하는 여자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린다. "고맙지만 꽃같은 거 키울 줄 모르는데." 파출부는 여자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낸다. 여자는 반으로 접힌 종이를 펴고 염서체로 인쇄된 글을 읽는다. 꽃이름 낙동구절초. 학명 C. zawadskii Herb. ssp. naktongensis(Nakai) Y. Lee. 과명 국화과. 셀러드라고 커피만 준비하면 되죠? 아줌마가 묻는다. 여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인다. 화분을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세요. 이 꽃은 밝은 장소를 좋아합니다. 물은 흠이 약간 마른 다음에 주세요. ... 식물일기를 쓰는 것도 꽃을 가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예쁘게 가꾸세요.

여자는 눈을 두세 번 깜빡이더니 식탁 위에 엎드러진다. 팔꿈치에 부딪혀 화분이 엎어진다. 흠만 조금 앞질러졌을 뿐 깨지지 않았다. 아줌마는 흠을 쓸어 담고 행주를 가져다 식탁을 닦는다. 그녀는 이제 이러한 일에 익숙하다. 처음에는 기절하듯이 잠드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흔들려 깨우기도 하고 119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자가 자연스럽게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엄마, 선생님이나 관찰일이 숙제를 냈어." 아이는 엄마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있는 여자에게 알람장을 들이밀었다. 여자가 침실로 들어가 의출복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문 밖에 서서 숙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가 귀찮게 구는 것이 싫었다. "얼마 주면 되니?" 그녀에게 주말은 오로지 쉬기 위한 날이었다. 특히 그 즈음에는 까닭을 알 수 없는 피로에 시달리며 각성제에 의지해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는 여자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졸라댔다. "나중에 아빠랑 같이 가." "안돼. 엄마랑 가야 돼. 선생님이 엄마랑 하는

숙제라고 했어. 이것 봐." 아이는 알람장을 들이밀며 '엄마와 함께' 라는 부분을 가리켰다. 마치못해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 근처의 꽃가게에 갔다. "어서 오세요."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여자는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졸음에 시달리며 회사에 도착하는 날이 잦아졌다. 일을 하다가 잠깐씩 졸기도 했다. 이내 직원들의 눈치가 보였다. 그런 식으로 회사 다니려면 집에서 예나 키워. 부장은 그녀를 불러 편지를 주기도 했다. "학교에서 애들한테 꽃을 키우라고 했다던데." 주인은 진열되어 있는 화분이나 꽃들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주었다. 아이는 여러 가지를 사달라고 졸랐다. 상추씨, 방울토마토 모종, 수선화와 철쭉 화분. 그리고 식물을 가꾸는데 필요한 화분과 인공흙, 물뿌리개, 모종삽, 영양제를 샀다. 그 날 이후로 아이가 베란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저녁마다 관찰일기를 들이밀며 여자를 귀찮게 했다. 아이의 가족은 집에서 키운 상추로 고기를 구워 싸먹기도 했다. 아이는 재빨리 식물을 잘 가꿨다. 하지만 방울토마토가 붉게 익은 것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잤어요?" 여자는 목이 빠르한지 이리저리 흔들려본다. "한 시간 정도. 다시 셀러드 만들까요?" "그냥 커피나 마시죠 뭐. 슈퍼에 좀 다녀와 주세요."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 메모지와 펜을 가져온다. 생수, 양상추, 오이, 화장지, 평소에 적는 물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요즘 무슨 과일이 맛있어요? 꿀도 좋고, 사과하고 배도 괜찮아요. 여자는 꿀을 사달라고 말하고 생각난 듯 커피를 적어 넣는다. 메모지에 사야할 물건들을 꼼꼼히 적는 것은 여자의 아주 오래된 습관이다. 일일이 메모해두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빠뜨릴까봐 불안해서 시작한 일이 고질기 되어버린 것이다. 아줌마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집을 나선다.

여자는 물을 끓여 커피를 탄다. 커피와 설탕, 프림이 함께 들어있는 커피믹스를 이용한다. 머그잔을 들고 거실로 가서 TV를 켜다. 푸른 화면은 정지된 상태에서 현재시각이 오후 3시 47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전원을 끄고 여자는 커피를 마셨는지라도 모른다. 부동산이 사회를 한창 떠들썩하게 만들던 시절에 여자는 증권에 관심을 가졌다. 그 후 증권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하고 여자로서는 드물게 입사시험에 합격했다. 투자상담사 1. 2종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는 된 것이지만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아침에는 하루걸러 영어와 일본어 회화 학원에 다녔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원에 갈 때마다 여자는 계획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신에게 감탄하곤 했다. 그녀는 입사한지 10년이 되던 해에 회사 내에서 최초로 여자 과장이 되었다.

그녀는 남에게 빈틈이 없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 언제나 남들 앞에서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깨어나지 않았다. 남자는 아내를 업고 612호까지 올라갔다. 여자는 밤 열한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눈을 뜨고 방을 둘러본 여자의 표정에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여자는 남편의 설명을 듣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컴퓨터하고 인터넷 설치하는 사람들이 들를 거야. 요즘 그거 안 깔린 집이 없잖아. 당신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노력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때도 여학생들은 꺼리는 경제학과를

택했는지도 모른다. 부동산이 사회를 한창 떠들썩하게 만들던 시절에 여자는 증권에 관심을 가졌다. 그 후 증권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하고 여자로서는 드물게 입사시험에 합격했다. 투자상담사 1. 2종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는 된 것이지만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아침에는 하루걸러 영어와 일본어 회화 학원에 다녔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원에 갈 때마다 여자는 계획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신에게 감탄하곤 했다. 그녀는 입사한지 10년이 되던 해에 회사 내에서 최초로 여자 과장이 되었다.

그녀는 남에게 빈틈이 없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 언제나 남들 앞에서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깨어나지 않았다. 남자는 아내를 업고 612호까지 올라갔다. 여자는 밤 열한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눈을 뜨고 방을 둘러본 여자의 표정에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여자는 남편의 설명을 듣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컴퓨터하고 인터넷 설치하는 사람들이 들를 거야. 요즘 그거 안 깔린 집이 없잖아. 당신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노력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때도 여학생들은 꺼리는 경제학과를

택했는지도 모른다. 부동산이 사회를 한창 떠들썩하게 만들던 시절에 여자는 증권에 관심을 가졌다. 그 후 증권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하고 여자로서는 드물게 입사시험에 합격했다. 투자상담사 1. 2종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는 된 것이지만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아침에는 하루걸러 영어와 일본어 회화 학원에 다녔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원에 갈 때마다 여자는 계획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신에게 감탄하곤 했다. 그녀는 입사한지 10년이 되던 해에 회사 내에서 최초로 여자 과장이 되었다.

그녀는 남에게 빈틈이 없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 언제나 남들 앞에서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깨어나지 않았다. 남자는 아내를 업고 612호까지 올라갔다. 여자는 밤 열한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눈을 뜨고 방을 둘러본 여자의 표정에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여자는 남편의 설명을 듣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컴퓨터하고 인터넷 설치하는 사람들이 들를 거야. 요즘 그거 안 깔린 집이 없잖아. 당신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노력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때도 여학생들은 꺼리는 경제학과를

여자는 모든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확신이 없어지고, 망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남에게 빈틈이 없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 언제나 남들 앞에서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깨어나지 않았다. 남자는 아내를 업고 612호까지 올라갔다. 여자는 밤 열한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눈을 뜨고 방을 둘러본 여자의 표정에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여자는 남편의 설명을 듣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컴퓨터하고 인터넷 설치하는 사람들이 들를 거야. 요즘 그거 안 깔린 집이 없잖아. 당신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노력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때도 여학생들은 꺼리는 경제학과를

출짜며 거실을 거닌다. 빈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소파에 눕는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니가 귤가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여자가 자는 사이 파출부가 돌려놓은 것이다. 사방이 텅골장미로 둘러싸인 정원에서 한 가족이 오후 한 때를 즐기고 있다. 따사로운 햇살이 정원 가득 흐르고 이들은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한다. 남편과 여자, 아들, 딸 모두 행복해 보인다. 여자는 남편의 다리를 베고 누워 책을 읽는다. 아들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린다. 딸은 장미를 한 아름 꺾어 꽃다발을 만든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으려니가 뭔가 낯설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여자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느 순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텅 빈 공간에서 소리만이 집요하게 귤가를 파고든다. 여자는 소스라치며 일어난다. 휴대폰 벨소리였다. 파출부가 장에 가면서 놓고 갔나 보다. 몇 개월만에 듣는 전화벨 소리여서 더욱 놀란 것 같다. 여자의 집에 전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달 전부터 플러그를 뽑아놓고 있다. 여자는 휴대폰을 바라보다 꿈속에서 들었던 낯선 느낌의 정체를 파악한다. 그 사람들은 파출부의 가족이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여자는 그렇게 느꼈다. "편지가 와 있네요." 여자는 파출부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달아오른다. 아줌마가 꿈을 보았으면 어쩌나 하는 망상에 사로잡힌다.

여자는 결정을 보고 남편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남편의 글씨체는 결혼 전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편지에는 간단한 안부 인사와 토요일에 집에 데리러 올 테니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적혀 있었다. 여자는 그가 왜 만나자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남편과 3개월 전에 만났었다. 스키장에서 놀던 꿈을 꾸던 여자는 누군가 무지막지게 흐드는 바람에 잠자리에 깨어났다. 남편이었다. 여자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웃을 행거 입고 집을 나갔다. 하지만 왜 집을 나서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차를 몰아 여자를 데려간 곳은 가평에 위치한 조

일이었다. 인터넷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채웠다. 인터넷. 이것으로 인해 남편과 더 소원해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남편이 말한 대로 다음날 컴퓨터를 설치하는 사람이 다녀갔다. 통신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자꾸 집안을 훑어다녔다. 여자의 집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집과는 많이 달랐다. 한마디로 살풍경 했다. 거실 벽에는 흔한 흔한 달력 하나도 없고, 장식용으로 보이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는 반소매를

입고 있었고 조금만 움직이면 옷에 땀이 배는 게 절이었다. 특히 남자의 관심을 끈 것은 이층으로 되어있는 커피였다. 여자는 드레이퍼리 스타일로 바닥까지 늘어뜨린 벨벳커튼과 드레이프 커튼으로 자신과 외부를 차단했다. 이 우중충한 커튼을 걷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집안에서는 언제나 숨이 막힐 듯한 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자의 관심을 끈 것은 여자였다. 여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남자를 불정격으로 여기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주인 여자가 자제록 환자와 같은 정신이상자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남편은 컴퓨터 전용 책상과 프린터까지 달려

소설부문심사평

욕심만 앞세우기 보다는

동대문학상 소설 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세 편에 불과했다. 문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수는 별로 줄어들지 않는데 반해 동대신문이나 교지의 문학상 응모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신춘문예나 각종 문예지의 현상공모에 투고되는 작품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창작에 뜻을 둔 학생들이라면 신춘문예 쪽에 더 관심이 있겠지만, 욕심만으로 일이 성사되지 않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투고된 세 편의 작품 가운데 '무지개'는 여러 면에서 '소설'의 기본 수준에도 미달하는 작품이다. 자신만의 특수한 경험을 글로 옮겼다고 해서 소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상강(霜降)'은 주제가 불투명하고 문장도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근대 시절의 제설작업과 아버지의 면회, 그리고 전연한 현재의 상황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제각각 놓고 있어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귀머거리 앞에서 방울을 흔들다'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작품이다.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 자살한 뒤 수면과다증에 시달리며 모든 일상과 거리를 둔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섬세하게 재현한 능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친정 부모의 교통사고, 아들의 자살 등의 사건이 지나치게 작위적인 데다가 결말처리 또한 상투적이어서 가작으로 뽑는다. 더욱 정진하기 바란다.

장영우
문예창작학과 교수·문학평론가



제15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10면에서 계속

그날부터 둘은 서로의 해묵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저보고 속으로 팔자가 늘어진 년이라고 생각하시죠?”

아줌마는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말했다.

“왜 집에만 있었어요, 처음엔 글같은 거 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집에 틀어박혀서 잡자는 게 전부죠. 남편과는 별거 중이에요. 이혼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귀찮아서 그만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가 이혼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언제든지 응해주기로 합의한 상태예요.”

대학 3학년 때 남편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시 대학원에 다니는 같은 과 선배였다. 정확한 처수에 맞춰 웃을 마르듯, 여자와 남자는 자신들의 삶도 같은 방식으로 재단하는 것을 좋아했다. 둘은 같은 해에 졸업을 하고 각기 다른 증권회사에 들어갔다. 이듬해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여자가 대리모 승진하던 해 둘은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직장에서 밀려날 것이 두려워 출산하기 일주일 전까지 회사에 출근했고, 출산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다시 회사에 나갔다.

여자는 아이의 이야기에서는 지루한 회피하려 했다. 파출부에게 아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석달 전 아이의 기일이 있던 후의 일이다.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주말에만 아이를 만났어요. 남편도 나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둘 다 일 욕심이 강했으니까요. 문제는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벌어졌어요. 증권 시장이 호황이어서 우리는 특별보너스를 받았어요. 그걸로 친정부모님을 싸이판으로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여자는 한동안 뒷말을 잊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한동안 막막했어요. 내 인생계획표가 어긋나버린 거죠. 남편은 그때부터 내가 조금씩 이상해졌다고 해요.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전에는 남편과 영화도 보러 가고 주말에 여행도 다녔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모든 게 귀찮아졌어요. 매일 아이에게 시달리는 것도 너무 괴로웠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외동딸인 나에게 꽤 많은 유산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 돈으로 보모 겸 가정부를 구했어요. 가정부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기고 나는 회사에서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잠만 잤어요. 애를 키우는 데는 너무 소홀해서 아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 내가 살았던 방식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아요. 일이 아니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나를 잘 이해했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몹시 기뻐했어요. 원가에서 해방된느

낌이었어요. 제대로 엄마 구실을 해 본 적은 없지 만...”

말을 하면서 여자의 눈은 초점이 흐려지고 발음이 점점 불분명해졌다. 마치 꿈 속을 헤매는 사람이 잠꼬대들 하듯 어딘가 붕 떠 있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여자는 파출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 자리에 없는 남편이나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학교에 들어가고부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거야. 개는 언제나 너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했는데 너는 모르는 척 했어. 매일 잠만 잤지. 진수야, 네가 죽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난 네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걸 몰랐어. 당신도 아이에게 너무 무심했어.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애들이 너에게 흠을 먹고, 목에 칼날을 들이댔을 때 난 얼마나 끔찍했을까? 겨우 아홉살이었던 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 지금은 네 아픔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해. 엄마도 너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으니까. 당신은 천도제 지내는 걸로 진수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진다고 착각하지마. 당신은 회사에 있고 나는 자고 있을 때 진수는 베란다에서 곤두박질쳤어. 살기 싫다. 아무도 나와 놀지 않는다. 이런 녀석들을 팔뚝에 새기

고.”

말을 마친 여자는 탈진한 사람처럼 쓰러졌다. 그리고 이를 동안 깊은 잠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 뒤로 나에게 이상한 증세가 생긴 거예요. 걸핏하면 잠이 쏟아졌어요. 물론 전에도 잠을 많이 자기는 했지만 그것을 통제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경우가 달랐어요. 운전하다가 깜박 졸아서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도 갑작스럽게 잠이 쏟아지곤 했어요. 각성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뺏속에 굶어 죽은 귀신이 들어있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남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찾았어요.”

정신과 의사는 처음에 그녀의 증세를 수면과 다증이라고 말했다. 그 병은 전문적인 용어로 클라인-레빈 증후군이라고 한다. 일년에 수차례에 걸쳐 일주일이나 아주 일 정도 잠이 쏟아지고, 밤에 아무리 많이 자도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 또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이 먹고 우울증과 기억력 장애가 생긴 병이다. 의사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면서 꽤 많은 양의 항우울제를 줬다. 그것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도로 무익이 되었다. 여자의 증세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되자, 의사는 처음의 자신감 있던 말투와는 다르게 무뎠



입한 어조로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니,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다고 권해주었다. 의사가 뭐라고 했던 여자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런 말 하긴 좀 창피하지만 저는 남편과 그 것을 하다가도 잠에 빠지곤 했어요. 처음 한두 번은 남편이 나를 위로해주기도 했는데,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아예 안 하게 되었죠. 집안에 틀어박혀서 밤낮으로 먹고 자기만 하는 내 모습은 남편에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우린 합의에 별거를 하기로 하고 남편이 이 집을 구해줬어요.”

여자의 말을 다 듣고 난 파출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손뼉을 쳤다.

“강아지 한 번 길러보실래요? 옆집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키워줄 사람을 찾더라고요. 마르티스종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거 키우면 적적하지도 않고 좋을 텐데.”

여자는 강아지가 생기면 분명 굶겨 죽일 거라고 말하며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밥 차려놔요. 그럼 저는 갈게요.”

벌써 여섯 시가 다 된 모양이다. 파출부는 집에 갈 준비를 마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그럼 월요일에 봐요.”

여자는 현관까지 아줌마를 따라가서 인사를 하고 문을 잠근다. 베란다로 나가 파출부가 가는 것을 확인한다. 아줌마는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아파트 주차장 위를 종종거리며 걸어가고 있다.

여자는 욕실로 들어간다. 옷을 벗고 전신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훑어본다. 과도하게 찌던 살이 갑자기 빠져서 탄력을 잃어버린 고무풍선처럼 피부가 축 늘어졌다. 거울은 여자의 시들어버린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말 형편없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소리에 놀라, 왜 그렇게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았는지 깨닫자 코웃음을 친다.

여자는 뜨거운 물로 가득 채운 욕조에 몸을 담고,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를 얇게 썰어 얼굴에 붙인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로 오랜만에 설레임이라는 감정을 느껴본다. 웬지 주말을 기점으로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올 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 남편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먹을지 욕조에 누워 곰곰이 생각한다.

여자는 소매가 없고 가슴 부분이 살짝 파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여자의 손에 30캐럿 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준다. 하객들은 모두 여자를 부러워한다. 둘은 무인도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벌거벗은 채로 바닷가를 걸다 둘은 색소를 한다. 부드러운 손가락의 애무를 받으며 여자는 오르가즘을 느낀다. 밀려온 파도가 둘의 몸을 적신다. 그런데 물이 너무 차다.

추위를 느끼고 정신이 든 곳은 욕조 안이다. 또 잠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졌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밥을 먹으며 내일은 미용실에 가볼까 생각한다. 잠시 후 그런 생각을 해낸 자신에게 놀란다. 미용실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3년 가까이 된다. 그녀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기로 마음먹는다.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 시계를 보니 오후 2시다. 샤워를 마치고 방에 와서 옷장 문을 연다. 예전에 자주 입던 청회색의 정장을 꺼내 입는다. 너무 살이 빠진 탓에 옷이 잘 맞지 않는다.

아이가 죽고나서 여자는 틈만 나면 먹어댔다. 처음에 뱃살이 두 겹, 세 겹으로 늘어날 때는 며칠 좀 덜 먹으면 원상태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큰 착오였다. 갑자기 몸무게가 늘자 살이 트기 시작했다. 살이 트 부분은 마치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여자가 많이 먹을수록 구더기 역시 살이 오르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 나중에는 살갗을 온통 덮어버렸다. 남편은 헬스 기구나 식이요법 등을 통해 여자의 살을 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회한하게도 남편과 더 이상 살지 않자 식욕이 썩 사라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먹는 것 자체가 역겨워졌다. 물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그토록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들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다. 그렇게 살이 빠져 지금은 사십킬로그램을 조금 웃도는 꼴마는 여자가 되었다.

식욕은 줄었어도 잠을 자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있었다. 여자는 잠을 자면 거의 항상 꿈을 꾸다. 깨어나서도 그 꿈들을 거의 기억하는데 대부분 여자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잠을 자면서 여자는 죽은 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룰 수도 있다. 여자에게 있어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일종의 의식과 같은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분도 없고 불가능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여자는 꿈을 꾸면서 이대로 깨어나지 않고 영원히 잠들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곳은 너무 황홀해서 오로지 그녀만을 위해 존재하는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하지만 잠을 자는 것은 여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여자는 메모지에 옷과 화장품도 사야겠다고 적고 집을 나선다. 택시를 타고 예전에 잘 다니던 백화점으로 간다.

부스스한 머리에 비쩍 마른 여자를 사람들이 흘깃 쳐다보고 지나간다. 여자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느낄 때마다 숨이 가빠진다. 순간 눈앞이 흐릿해지며 타인의 구두굽이 바닥의 대리석과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고막을 뒤흔든다.

“괜찮으세요?”
백화점 직원이 여자의 팔을 붙들고 있다. 여자가 쓰러질 뻔한 것을 마친 지나가던 직원이 붙들어준 것이다. 여자는 괜찮다고 말하고 미용실이 몇 층에 있는지 묻는다.

7층에 위치한 미용실에는 평일인데도 손님들이 적지 않다. 머리를 빨간색으로 물들인 여종업원이 다가와 핸드백을 받아준다. 그녀는 여자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잡지를 가져다준다. 뭘 마실 것인지 묻고는, 아 무거나 갖다달라고 하자, 헤이즐넛향 커피를 준다. 종업원의 친절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일층 매장에서 위촉되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낀다. 커피를 마시며 잡지를 반쯤 넘기고 있으려니까 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생글거리며 다가온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그의 말투와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우아함이 배어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여자는 어쩐지 그가 죽는다.

“그냥.”
괜히 주눅이 들어 말을 우물거린다. 원장은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

“저희 샵에 들린 지 꽤 오래되었죠? 머릿결이 너무 상하셨다. 트리트먼트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머릿결을 좋게 하는 퍼머넌트가 있거든요.”

여자는 원장에게 모든 걸 말한다. 여계선에서 조금 내려간 길로 머리를 자른다. 군데군데 브릿지를 넣고 매직스트레이트를 한다. 여자는 바뀐 머리 모양이 조금 어색하지만 마음에 든다. 자신의 모습이 백화점에서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비슷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일층 화장품 코너로 간다. 여직원이 권하는 대로 기초부터 기능성과 색조 화장품까지 모두 산다. 숙녀복 매장에 둘러 쇠신 유행하는 정장 세 벌과 홈드레스 두 벌 구입한다. 내친 김에 속옷도 사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구두와 핸드백도 산다.

집에 돌아와 소꿉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정리한다. 자신이 소꿉하던 내내 한 번도 풀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린다.

다음날 아침 여자는 미역국을 끓여먹고 목욕탕으로 향한다. 목욕탕에서 마사지를 받고, 그곳에 있는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하고 개운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전날 산 옷가지들을 꺼내 놓고 하나씩 몸에 대본다. 어떤 차림이 제일 잘 어울릴지 거울 앞에 서서 한참씩 고민한다. 남편이 좋아하는 색깔인 하얀 속옷을 입고 올리브색의 바지 정장을 고른다. 정성을 들여 화장을 마치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여자는 텔레비전을 켜고 재방송해주는 수목드라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눈앞에서 무수히 많은 필름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 어떤 장면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상하게 잠도 오지 않는다. 지난 시간들이 마치 시간을 짓눌러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놓은 듯 여겨지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은 시간을 잘게 쪼개서 무한대로 늘려놓은 것처럼 느껴진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카나리아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초인종 소리가 들려온다. 여자는 거울을 보고 머리모양과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후에 현관문을 열어준다. 여자의 모습을 본 남편은 많이 놀란 듯하다. 그는 아내가 지금도 잠을 자고 있거나 세수도 안 한 채로 자신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은 아파트를 나와 청담동에 있는 프랑스 요리 전문점으로 간다. 둘은 양파 소스를 곁들인 송아지요리를 주문한다. 여자는 내심 남편이 언제쯤 축하 인사를 해주려나 기대하고 있다. 남편은 자신의 근황을 간단하게 말할 뿐 입을 잘 열지 않는다. 차례대로 주문한 요리가 나오자 둘은 규칙적이고 느릿한 손놀림으로 송아지 요리를 입으로 가져간다. 견디기 힘든 짐목이 여자의 목에 걸려 음식물 삼키는 것을 방해한다. 식사를 마치자 남편은 매독 한 병을 주문한다. 매독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 그가 좋아하는 와인이다. 여자는 이제야 남편이 뭔가 말하러나 보다 생각하고 그의 표정을 살핀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사실은.....”

냉정해지기 위해서인지 온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말투에서 모든 것을 감지한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좋은 예감이 한순간 사라져버린 것을 느낀다. 문득 자고 싶다 라고 중얼거린다. 남편의 다음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는 그녀가 미처 제지하기 전에 내용물을 급하게 쏟아낸다.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어. 꽤 괜찮은 여자야.”

월요일 오후 한 시 무거운 정적을 뚫고 612호의 현관문이 열쇠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를 낸다. 파출부는 여러 곳에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린다. 거실 청소를 마치고 침실을 청소하기 위해 방 문을 두드린다. 아무 대답이 없다. 아줌마는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 다시 방문을 두드린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다. 조금 더 있다 청소하기로 하고 커피를 마신다.

화분을 보니 낙동구절초가 시들어 있다. 며칠동안 햇빛을 제대로 쏘이지 못해서인지 약간 웃자라 있다. 전보다 향기도 약해진 듯하다. 목요일에 피어 있던 꽃들은 시들었고 두 송이가 새로 피어 있다. 하지만 선명한 연분홍 빛깔이 아니라 퇴색한 듯한 빛깔이어서 그다지 볼품이 없다. 베란다에 화분을 내놓고 물을 준다. 커튼을 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오랜 시간 창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듯 상쾌한 공기가 집안으로 밀려든다.

다시 방문을 두드린다. 여전히 인기척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을 열고 들여다본다. 여자는 침대 위에서 슬픔이나 고통 따위는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아줌마는 그녀가 굉장히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 꿈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는다.

파출부는 이날 결국 여자의 방을 청소하지 못했다. 저녁 여섯 시가 되자 목요일에 한꺼번에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아파트를 나선다.



동대학술상

제38회 동대학술상 입상작

◆ 인문과학부문

장원 입상작 없음

가작 문학텍스트와 매체언어텍스트 분석의 상호텍스트성
강현구 (사범대 국어교육4)

◆ 사회과학부문

입상작 없음

◆ 자연과학부문

장원 CVL함유 PVA마이크로캡슐의 열가역적 기록재료에 대한 연구
진영준 (이과대 화학4)

가작 한국산 염낭거미과(거미강, 거미목)의 한국 염낭거미(Clubina coreana)에 대한 재정리
최민경 (생지대 응용생물4)

◆ 심사위원

인문과학부문 이기동 (문과대 사학과 교수)
사회과학부문 양영진 (사과대 사회학과 교수)
자연과학부문 박인국 (이과대 생물학과 교수)

수상소감

“좋은 추억 간직하고 졸업하게 돼”

논문을 마무리하던 순간이 생각합니다. 마지막 수정을 끝내고 '인쇄'라는 키를 누르는 순간 참 많은 양의 글들이 나왔습니다. 미구 떨리고 무엇인지 모를 벅찬 느낌에 사로 잡혔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한자 한자가 모두 소중한 재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무언가 하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겨울방학 동안을 실험에 매달렸습니다.

순간순간 힘든일이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김범구 선생님과 조현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이런 중요한 논문 주제를 맡겨 주신 김영순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좋은 추억을 더 간직할 수 있어 행복한 저입니다. 물론 대학 4년동안 후회스러

운 점도 많았지만, 이번 논문 당선으로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저를 도와준 대학원의 선배님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향우회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부족한 자식을 위해 대학 4년 동안 걱정과 염려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영준 (이과대 화학4)

CVL함유 PVA마이크로캡슐의 열가역적 기록재료에 대한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국제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사무실의 서류처리와 증가하는 카드의 처리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특히 한 번 사용한 후 버려지는 양은 연간 약 20억 매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무실이나 각종 기관과 개인에 의해 소비되고 버려지는 폐지의 양은 그 처리가 환경문제로 대두될 만큼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가역성 기록 가능재료(Rewritable Marking material)란 어떤 에너지가 주어지면 화상이 형성되고, 그 화상은 에너지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여기에 다른 에너지를 가하면 화상이 없어져서 재사용이 가능한 기록 재료를 말한다.

가역성 기록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 열가역성 재료가 해상력,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반복성은 다른 재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용성이 뛰어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열가역성 기록재료에는 고분자/저분자 복합형, 고분자형, Leuco dye형이 있는데, 이중 Leuco dye형은 색조변화를 이용한 것으로서, 2성분 발색계 중에서 leuco염료를 발색원으로 하여 염료와 감색제의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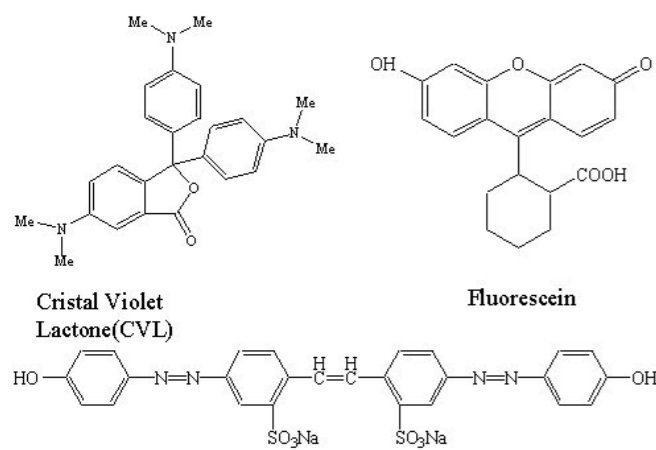


Figure 1. Structure of dyes

이러한 형태에는 염료의 선택에 따라 가역성의 색조를 선택할 수 있는 양성화합물, leuco염료 또는 ascorbic acid유도체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은 염료계이기 때문에 발생하기 쉬운 화학 안정성 때문에 실용화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염료를 어떠한 발색 요인으로 부터 보호해 준다면 안정성의 증가로 인해 실용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Protecting 방법에 마이크로캡슐화(microcapsulation)가 있다. 마이크로캡슐(microcapsule)은 지름이 대개 수 μm부터 수백 μm인 용기이다. 이 용기의 내부는 심물질(core material)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이 외부 환경에 방출될 때, 장소 및 속도는 막의 재료와 두께 등을 변화해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막의 재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재료는 대부분 천연 및 합성고분자이다. 심물질을 용기 가운데에 놓이게 만드는 방법은 마이크로 캡슐화(microcapsulation)라고 부르며, 심

물질을 미립자와 해서 매질 중에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심물질 미립자의 표면에 막을 입히는 방법도 있다.

마이크로캡슐의 주 응용에는 carbonless 복사기, 의약품 및 농약의 방출조제형, 식품첨가물, 화장품 및 향료 등의 응용을 들 수 있다.

마이크로캡슐은 이미 언급된 외부로부터 심물질을 보호하는 목적외에, 적당한 전달기구를 이용하여 의약 및 농약등의 생리 활성 물질을 보다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목표물에 전달할 수 있는 약품의 방출조제 시스템으로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마이크로캡슐화 방법은 크게 분류하여 화학적 방법, 물리적 방법 및 물리적·기계적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을 실제 사용하는가는 심물질과 피막물질의 조합과 마이크로캡슐의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르다.

캡슐화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화학적 방법에는 계면 중합법, in-situ방법 등이 있고, 물리적 방법에는 상분리법(coacervation method), 물리적·기계적 방법에는 spray-dry법 등이 있다.

특히 coacervation방법이 마이크로캡슐을 합성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Coacervation이란 균일한 액체 고분자 용액으로부터 상분리된 콜로이드 상태의 고분자 집합체가 분산된 용액 방울의 표면을 덮는 형태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장 용기 형태의 마이크로캡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액체 고분자 용액의 상분리는 강력한 친수성 물질을 가해줌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친수성 물질을 가해줌으로써 콜로이드 상태의 고분자 집합체의 농도가 진한 곳과 얇은 곳으로 상분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때 친수성 물질의 농도에 의해 온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균일한 용액이 두 개의 상으로 분리되는 온도를 흐림온도(cloud point)라 한다.

Coacervation을 이용한 마이크로캡슐 합성 방법은 Figure 2.와 같다. 먼저, O/W(oil in water) 형태의 유탁액(emulsion)을 형성하고, 온도를 흐림온도가 지 올려주면 상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가교제를 가해주면, 오일 방울주변에서 고분자의 가교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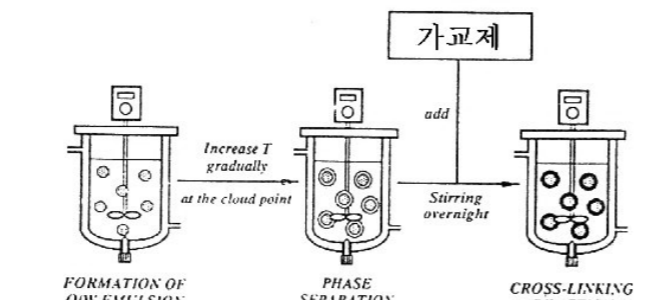


Figure 2. Schematic microcapsule by coacervation method

이 일어나면서 캡슐화가 행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캡슐화된 CVL의 발색과 소색 과정은 Figure 3.와 Figure 4.에 나타나 있다.

온도를 T1까지 올리면 발색제인 산과 CVL이 용융되면서 반응을 하여 광학밀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로인해 발색상태가 되며, 온도가 내려가도 발색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T2까지 온도를 올려주면 소색제가 용융되면서 발색제인 산과 결합하게 되어 광학밀도가 감소하면서 소색상태가 되고, 온도가 내려가도 소색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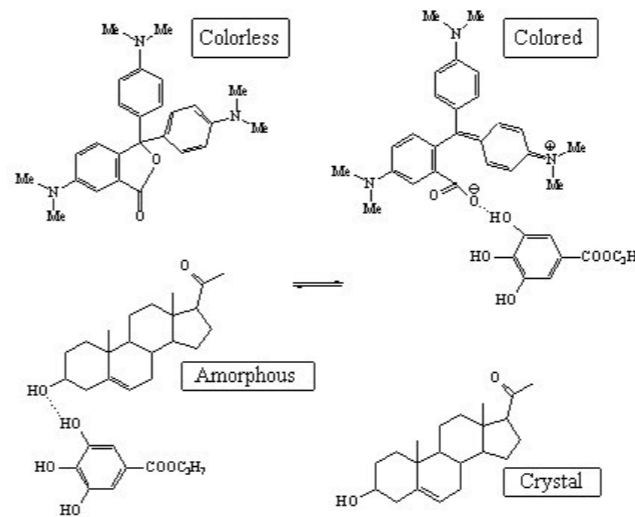


Figure 3. Schematic explanation of rewritable mech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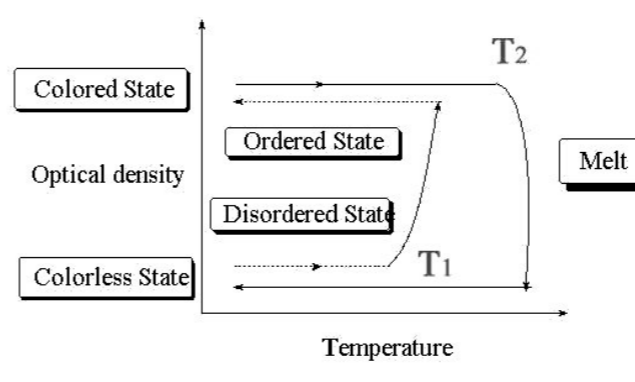


Figure 4. Schematic explanation of the rewritable mechanism making process

2. 연구 목적

본 실험은 재사용이 가능한 마이크로캡슐화된 CVL함유 열가역성 기록재료에 대한 연구이다. 캡슐의 피막재료로 PVA를 사용하고, 가교제로 포르말데하이드를 사용하여 마이크로캡슐을 합성한 다음, 합성시에 교반속도가 입도 분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캡슐화된 CVL이 기록 재료로서 가역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역성의 정도를 측정해 본다.

제2장. 실험

1. 시약 및 기기

(1) 시약

PVA와 포르말데하이드는 Junsei Co. 제품을 사용하였고, 황산나트륨과 불루엔은 덕산 화학 제품을 사용하였다. CVL은 Tokyo Kasei(TCI) 제품을 사용하였고, 프로필갈레이트(Propyl gallate),

프레그네놀론(Pregnenolone)은 Aldrich 제품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메탄올, 아세트산,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였다.

톨루엔은 나트륨을 이용하여 정제하여 사용하였고, 아세트산은 95% 원액을 사용하였다.

(2) 기기

자외선 분광기는 Hewlett - Packard 8452A photospectrometer를 이용하였고, 적외선 분광기는 Bomem사의 Hartmann & Braun model로 KBr pellet을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EM)은 HITACH (S-2150) model을 사용하였고, 감열 프린팅 헤드는 LIKER사의 SR-900II 모델인 메모리 작성기를 사용하였다.

2. CVL의 마이크로캡슐화

(1) 마이크로캡슐화

2% PVA용액 800ml와 20% 황산나트륨 용액 200ml를 혼합하여 10℃로 유지시킨다. 이 용액에 오일상(CVL 1g/불루엔 80ml)를 혼합하여 분당 1℃로 39℃까지 온도를 올려 유지시킨다. 10분 후 교반기로 4000rpm으로 교반을 시키면서 가교제(37% 포르말데하이드 90ml+메탄올 6ml)를 조금씩 가한다. 이렇게 해서 온도(39℃)와 교반속도(4000rpm)를 유지시키면서 24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시킨다.

반응이 완결되면 4단 표준망체(297, 149, 105, 74 μm)로 여과시키고, 캡슐화된 CVL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과액과 침전물을 검사한다. 미반응 CVL을 제거하기 위해 분별깔대기를 이용하여 n-헥산으로 여과액을 세척 분리하고, 수용액층을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다. 이때도 여과액을 미반응 CVL과 캡슐화된 CVL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 이제 생성물을 건조시킨 다음, 적절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입도분포를 측정하고,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표면을 관찰하였다. 위의 실험을 4000에서 8000rpm까지 1000단위로 교반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상술한 바대로 행한다.

Figure 5.의 메커니즘은 PVA의 가교화 반응으로서, 카보닐기에 대한 알코올의 친핵성 첨가반응(nucleophilic addition reaction)에 의한 아세탈(acetal) 생성 반응이다. PVA의 OH가 카보닐기와 반응하여 헤미아세탈(hemiacetal)을 형성하고, 다른 PVA와 반응하여 아세탈을 형성함으로써, 가교화가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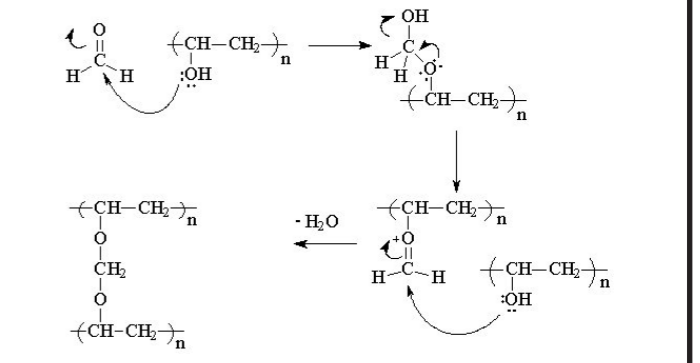


Figure 5. Cross-linking mechanism of PVA

제38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제3장. 결과 및 고찰

1. 캡슐된 CVL 합성 확인

생성물에 95% 아세트산을 가했을 때는 색의 변화가 없었다. 메탄올을 가한 후 95% 아세트산을 가했을 때, 색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자외선 분광기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Figure 7이다. 이 그림을 보면 메탄올과 산을 같이 가했을 때, 604nm 부근에서 흡광도의 증가를 볼 수 있다.

또한 Figure 8.을 보면 PVA의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에서는 3000cm⁻¹ 이상에서 OH 피크로 보이는 넓은 피크가 가교화된 PVA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figure 4.의 메카니즘이 적합하다는 것과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 함으로써 다른 여러 경우에서의 캡슐화 여부를 알 수가 있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입자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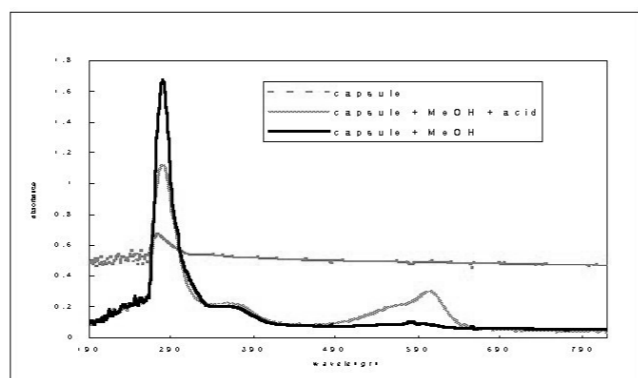


Figure 7. Spectra of cross-linked P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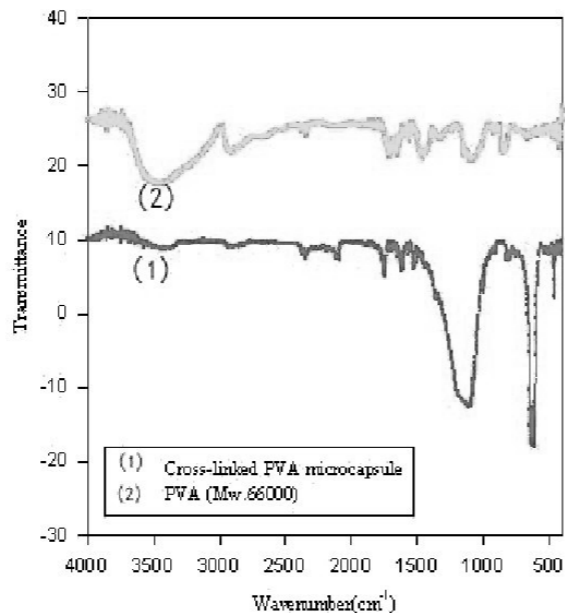


Figure 8. FT-IR spectra of microcaps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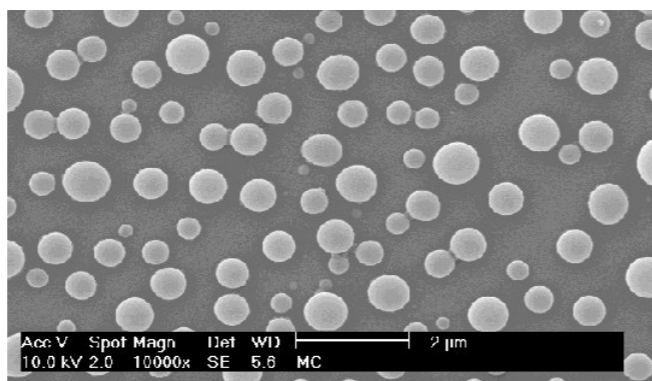


Figure 9. SEM photograph of CVL-containing poly(vinylalcohol) microcapsule

Figure 9.에 보이는 것처럼 구형으로 관찰되었다.

2. 검정곡선과 수득률

CVL 1g과 톨루엔 80ml의 혼합용액 중 1ml의 모든 CVL이 반응하는 산의 양을 조사한 결과 8ml정도의 산을 가할 때임을 알았다. 이 결과에 비추어 검정곡선을 구한 결과가 Figure 10.(R2 = 0.9466)과 Figure 11.(R2 = 0.9407)이다. 용액의 묽어짐에 따라서 흡광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두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검정곡선에 따라 CVL의 수득률을 계산한 결과, 전체 CVL 1g에 대해 54.97%가 나왔다.

3. 입자 크기에 대한 교반 속도의 영향

전체적으로는 교반 속도를 증가시키에 따라서 마이크로캡슐의 입도분포는 감소하였다. Figure 12.의 입도분포를 보면, 교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도분포가 감소하고, 그 감소폭 또한 점점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마이크로캡슐의 가역성

알루미늄 마일러위에 분산액을 도포하여 건조시키고, 열을 가하자 푸른색으로 변색하였다.

이 필름을 감열 프린팅 헤드를 이용하여 기록한 결과 Figure 13.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가역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본래의 도했던 positive type이 아닌 negative type으로 나왔다.

발색과 소색의 메카니즘을 보면 열을 가함으로써 소색제가 작용하게 하여 발색제를 억제시킴으로 인해 소색상태(백색)가 되고, 감열 프린팅 헤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경우에 기록부위가 파란색으로 발색이 되어야 한다.

Negative type이 얻어진 것은 감열 프린팅 헤드의 헤드온도가 소색제의 용융점보다 높은 온도이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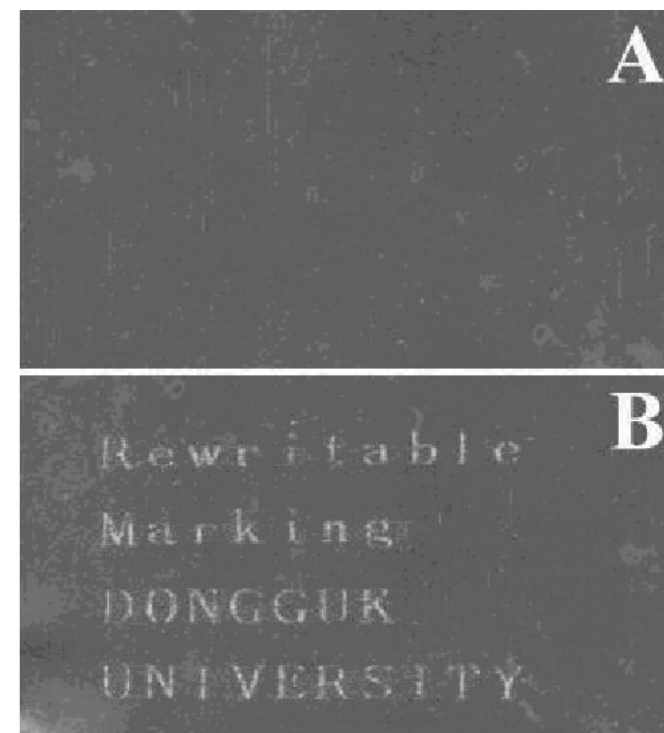


Figure 13. Reversible image of CVL containing PVA microcaps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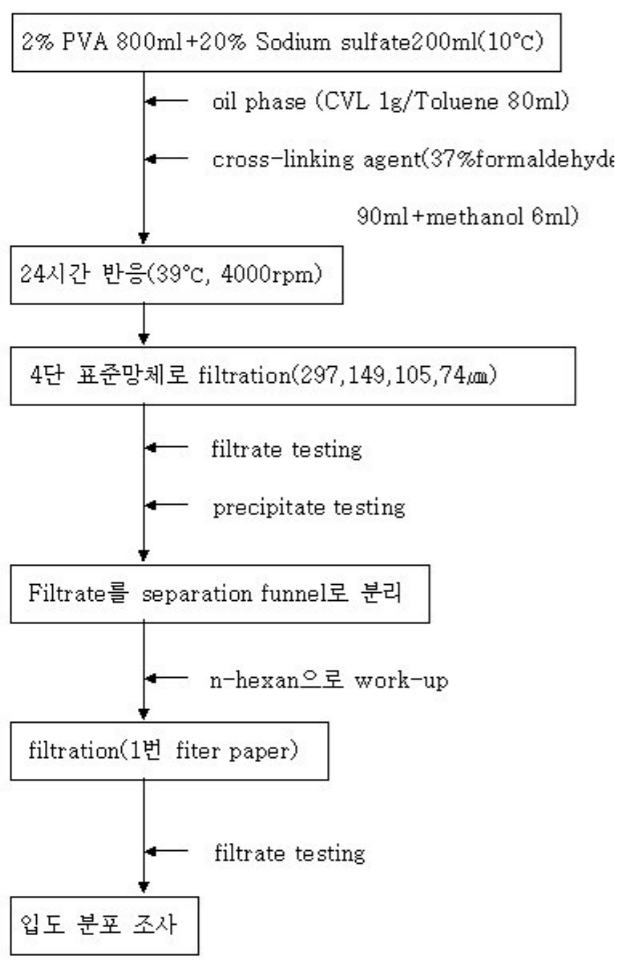


Figure 6. Flow chart for Microencapsulation

(2) 캡슐화 검사

먼저 캡슐화가 되지 않은 CVL에 대한 검사는 95% 아세트산을 가하면 파란색을 띠게 된다. (λ=604nm)

캡슐화된 CVL에 대한 검사는 먼저 95% 아세트산을 가하고, 색깔이 파랗게 변하면 캡슐화가 되지 않은 것이며, 아세트산을 가했을 때는 발색을 하지않고 메탄올을 가한 다음, 95% 아세트산을 가할 경우 색깔이 파랗게 변하면 캡슐화가 행해진 것이다. 이것은 CVL이 산과 반응하여 발색을 하게되는데, 캡슐화가 되었다면 CVL이 산과 반응을 할 수 없지만, 가교화된 PVA를 녹일 수 있는 메탄올을 가한 다음 산을 가하면 CVL을 보호하던 피막이 제거되므로, 파란색으로 발색을 하게되는 것이다.

(3) 검정곡선 작성

CVL 1g을 톨루엔 80ml에 녹였다. 이 용액 1ml를 이용하여 모든 CVL이 산과 반응하는 산의 양을 조사한 뒤, CVL용액 1ml씩 여섯 개의 시험관에 넣고, 각각의 시험관에 95% 아세트산을 10ml씩 증가시키면서 가한 후, 자외선 분광기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수득률 계산

생성물인 캡슐화된 CVL 0.02g을 톨루엔 10ml에 녹여 자외선 분광기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전체 1g에 대한 수득률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을 3회 반복하여 산술평균값을 구했다.

(5) 필름 제작

캡슐화된 CVL, 현색제인 프로필갈레이트, 소색제인 프로그네놀론, 그리고 고분자수지인 아크릴 수지를 톨루엔에 넣어 볼밀(ball mill)로 곱게 갈아서 분산시킨다. 분산액이 만들어지면 알루미늄 마일러(mylar)에 wire bar를 이용하여 얇게 도포시킨 다음 건조 시킨다.

제4장. 결론

본 연구는 고분자(PVA)를 이용하여 심물질(CVL)을 캡슐화시킴으로써 발색 조건을 조절하고, 이러한 캡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실제로 필름을 제작하고, 감열 프린팅 헤드를 이용하여 가역적 기록재료로서의 효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험 조건 중에 교반 속도를 증가시켜주에 따라 캡슐의 입도 분포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알았고, 8000rpm 이상에서는 입도 분포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상적인 토너용 고분자의 입자크기가 1-5μm이므로, 캡슐화의 최적 교반 속도는 7000rpm임을 확인하였다.
2. 가역적 기록 재료로서의 효능을 알아본 결과, 500회의 반복 실험에도 가역적 성질을 유지하였다.
3. 캡슐화 방법은 기록재료 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농업화학약품, 향수, 사료 등 여러 다른 분야에도 응용 폭이 넓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 캡슐의 재질 또한 달라야 하므로, PVA가 아닌 다른 재료를 이용한 캡슐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

인문과학부문심사평

소화된 주제 내용을 우선으로

학술상 심사에서는 대학 졸업반 수준의 논문임을 감안하여, 먼저 주제의 내용을 얼마만큼이나 소화하고 있는가를 보았으며 다음으로는 논문의 체계성과 창의성이랄까 참신성이랄까를 참작했다.

동서양의 신비주의를 비교한 장호진(인도철학전공)의 논문은 착실한 연구노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논문으로서의 짜임새가 약하고 주지(主旨)가 분명하지 못한 것이 흠이었다.

한편 일본의 초기 근대화를 다각도로 고찰한 김연옥(사학전공)의 논문은 체계성이란 면에서는 우수한 편이었으나, 워낙 방대한 주제를 다룬 까닭으로 다분히 개성적인 논설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현재 국어교육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소위 매체언어교육(미디어교육)을 주제로 한 강현구(국어교육)의 논문은 우선 그 실천성이 돋보이고 있고, 또한 신경숙의 단편소설이나 광고 문안을 텍스트로 분석하는 등 구체성마저 띠고 있어 가작으로 추천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기 동
문과대 사학과 교수

사회과학부문심사평

논리적인 자기 주장 아쉬워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에서 헤가 바뀔 때 좀 시행하고 있는 신춘문예에 응모한 수많은 작품들을 읽어 내고 우수작을 추리는 심사위원들의 고충은 크다.

그러나 그들은 역량있는 신인들의 참신한 작품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괴로움을 참아 낸다.

대부분의 대학언론에서는 문학상뿐 아니라 학술상제도가 있어 인문·사회·자연과학 등의 분야를 구분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신진기예를 발굴하려 애쓴다.

본의아니게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삼년 연속 사회과학부문 심사를 맡게 된 평자는, 가슴아프지만 올해는 가작도 내지 않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응모편수의 격감이다. 99년 7편, 2000년 6편이던 것이 올해는 단 2편으로 줄었다. 둘째, 그 두편의 글 모두가 형식측면에서 논문작성법의 기초도 모르는 '무늬만 논문'이다.

셋째, 내용면에서는 사회과학이 현실과학임을 망각하고 '담위'를 앞세워 실현가능성 없는 공허한 논의를 되뇌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우리말을 정확히 구사하며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글쓰기를 우리 사랑하는 N세대 학생들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아쉽지만 학술상 제도는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된 듯하다.

양 영 진
사과대 사회학과 교수

자연과학부문심사평

실험방법과 결과 해석 적절

본상으로 당선된 'CVL 함유 PVA 마이크로 캡슐의 열가역적 기록 재료에 대한 연구'는 재현성이 가능한 PVA microcapsule의 열가역성 기록 재료 합성에 관한 것이다. 합성에 필요한 피막 재료로서 PVA를 사용하고 cross-linking agent로서 formaldehyde를 사용하였으며 캡슐화를 확인하기 위해 발색반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합성된 microcapsule의 물성과 가역성을 조사하기 위해 UV spectra, FT-IR spectra, SEM 및 image analysis 등을 사용한 결과 매우 효능이 높은 가역성 성질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논문은 그 실험 목적과 내용에 적절한 실험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가작으로 당선된 '한국산 염낭거미과(거미강, 거미목)의 한국염낭거미에 대한 재 정리'는 한국산 염낭거미과(거미강, 거미목)의 한국염낭거미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한국에는 약 60여종의 거미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많은 거미류의 분류학적 인 동정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종을 조사하였다. 즉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지에서 학술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종을 선택하여 수컷의 수염기관과 암컷의 내 외부 생식기를 정확하게 재기 재함으로써 동정상의 오류를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의가 자대하다.

박 인 국
이과대 생물학과 교수

달하나 천강에

최선의 결과는 아름답다



서 태 양
관광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우리는 흔히 매사에 성공이나 실패의 이분법적인 생각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관심은 오직 만족스런 결과에 있고, 부정적인 결과에 쉽게 승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 삶은 결과가 두렵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용기 있는 삶에 감동하며 갈채를 보내기도 한다. 그것은 곧 아름다움이며 기개 있는 젊은이의 특권이기도 하다.

자연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각자 제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위 틈에 피어난 들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행태는 자신보다는 남만 닦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반성 없는 반쪽 삶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지난 가을 황성공원으로 산책을 가는 길에 북한가

의 고수부지를 지나면서 동천 댕 같은 작은 밭에 갖가지 농작물들이 가꾸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감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곡식이 무성하게 잘 가꾸어진 두 밭이 눈에 띄었다. 한동안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관찰해 보니 이웃의 밭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다른 밭에 비해 주변의 돌담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땀 배인 노력이 깃들어 있었고, 그 결과 돌담이 하나 없는 옥토를 일구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북천돌담의 높이에 비례한 농작물의 작황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자성과 더불어 뿌린 만큼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2000년 새즈믄해를 조용히 접는 세월에 북한 돌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를 그저 '잘 아는 사람'은 험겨운 인생을 살 것이며 '잘 믿는 사람'은 답답한 삶을 이어갈 것이며, 세상은 오직 '잘 실천하는 사람'만의 몫인 것이다.

새로운 세기에는 결과에만 집착한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벗어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승적인 삶에 무게를 두는 동국인이 되기를 권하고 싶다.

그것이 곧 21세기를 사는 젊은이의 성공적인 삶의 자세일 것이다.

허상 쫓는 사람들 그 이름, 명품족!

N세대에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세대가 바로 L세대(Luxury-Generation)라 불리는 명품족이다.

명품족이란 고가의 수입 정장이나 가방, 구두 등의 액세서리 소비를 일상화하면서 명품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찾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프랑스의 루이비통 가방이나 이탈리아의 페레가모 구두 등 명품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리고 한달에 20-30만원씩을 '명품계'라는 이름으로 모으기도 한다. 또한 이들 명품족은 중고 명품은 쓰더라도 가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해외여행도 관광보다는 명품구매 위주로 스케줄을 결정해 명품살을 도는 명품관광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품족의 소비양상은 뼈뺀 소비 형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젊은층의 연예인 모방심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흉내내는 것으로 표현되던 것에 그치지 않고 연예인과 동일한 제품구매로 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예인의 사회적 부나 명예를 모방하는 형식으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심리의 한 단면일 뿐이다.

진정한 명품의 가치와 소비자 역할 돌아보는 자세 필요

뿐만 아니라 고가 브랜드를 구입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해 자기의 경제적 위치가 타인보다 높게 보이려는 심리까지 작용, 베르사체의 베르수스, 프라다의 미우미우 등 명품2세로 일컬어지는 영캐주얼 브랜드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명품에 열을 올리는 소비심리 때문에 명품을 가정한 모조 브랜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모조품과 진품 구별방법을 담은 '명품속 가짜이야기(웅진닷컴)'가 발간되는 진풍경을 낚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명품족들의 소비행태에 반기를 드는 국내 실속 중저가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99년 문을 연 이래 꾸준히 국내명품알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 목동동 중소기업 전문백화점 '행복한 세상'은 '통인가게', '헨드 앤 마인드', '황기모아' 등 전국 각지의 국내 명품을 발굴하고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또한 명동 '중앙동' 열 골목이 국산 브랜드 거리로 바뀌면서 실속과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중저가 브랜드의 경우, 외국명품에 비해 가격에서 거품을 빼 실속과들의 알뜰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명품은 비단 브랜드 이미지나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혹은 소비자가 제품을 얼마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명품이 결정되는 것이다. 명품이라는 허울좋은 가치에 소비자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가는 제품이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는 명품일 것이다.

문화부
fresh@dongguk.edu

체험! 방송의 현장

방송의 모든 것 한자리에 ... 내용 부족 아쉬움 남아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강남의 한 건물에 들어 서면 TV 화면으로만 보던 갖가지 방송 장비와 세트, 특수분장 등과 같은 방송 이면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관에서 열리는 'MBC 방송어드벤처 2001'은 우리 나라 방송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자리에 모은 테마파크로 개최되었다. TV가 없던 시절 많은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큰지막한 라디오부터 3차원 입체영상을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시설까지 방송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 것이다.

MBC 간판 드라마 '허준', '체천구', '전원일기'의 세트장을 그대로 옮겨 전시장을 찾은 관객에게 친숙함을 더하고, '왕초'와 '국희'의 오픈세트를 재현해 70년대 서울을 엿볼 수 있으며 방송의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한다. MBC 뉴스센터를 실제와 거의 흡사하게 재현한 크로마키 스튜디오는 관객에게 미래의 앵커와 기상캐스터가 되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TV나 영화에서 익히 보아온 특수분장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MBC 방송어드벤처 2001'의 행사내용은 과장되고 포장된 겉모습에 비해 내실이나 실속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테마파크를 포방하는 'MBC 방송어드벤처 2001'은 본 목적보다 상업성을 띤 이벤트 행사장의 성격이 더 두드러진 것이다.

관람객이 참여하고 이용하는 행사나 시설은 부족한 것에 비해 행사 협찬업체들의 홍보부스와 기념품점이 난립해 있어 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이다.

또한 행사장 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도우미의 모습이나, 작동되지 않는 시설이 더러 있어 질적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 관람객은 "성인보다는 아이들이나 청소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이 강했다"며, "오히려 방송국 내에 마련된 견학코스만 못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라디오로 시작된 방송의 역사는 첨단 영상산업이 펼쳐지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유지·발달되어 왔다. 'MBC 방송어드벤처 2001' 역시 이러한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면서 치러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상업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방송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려던 처음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70년대 서울을 엿볼 수 있는 '왕초'와 '국희' 오픈세트장.

표은영 기자
pisk20@dongguk.edu

국내 애니메이션, 미래 점친다

PISAF 기반 ... 미약한 애니메이션산업 도약 기대

데포르주 왕자는 반왕 켄 라우헬과 마녀 케레니스에 대해 왕위를 되찾기 위한 힘든 싸움을 벌인다.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가슴 졸이던 독자들이 이제 직접 만화속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것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 관한 내용이다.

디즈니 만화로 대표되는 미국 만화와 재패니메이션이라는 확실한 세계를 구축한 일본 만화에서 만화가 게임으로 응용된 것은 이미 보편화된 사실이다. 하지만 만화를 영화나 게임으로 응용하는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부천에서는 이런 미진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이 열려 화제가 됐다.

작년에 이어 2회를 맞는 이번 PISAF는 국내외 40여 편의 애니메이션 무료상영과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학과 작품 전시, 록 페스티벌, 만화 그리기 대회 등 각종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내 대학들의 작품으로는 동양의 수목화를 만화적 기법으로 풀어낸 퓨전 애니메이션, 점토 애니메이션, 화투 애니메이션 등 대학생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전시가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행사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세형(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아직은 흉내내기엔 불과한 대학생들의 작품이 많지만, 작년에 비해 타매체 활용과 소재 선정에서 실험적 성향이 강해졌다"며 한국 만화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같은 날 '돌리 거리' 행사를 위해 방문한



국내 대학 애니메이션 작품을 둘러보고 있는 학생들.

만화가 김수정씨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잠재력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행사장을 둘러본 소감을 말했다.

애니메이션은 영화, 게임, 캐릭터, 비디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교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된다.

그간 국내 애니메이션계는 그 가능성을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곧 콘텐츠의 부족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능력 있는 인력 수급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PISAF같은 국제행사가 이러한 국내 애니메이션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삼가 故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우리 고향중의 고향이여

우리 모교 동국대학교에서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들어가 살던
그 연꽃 내음새가 나고

목을 베니
젖이 나 솟았다는
성(聖) 이차돈의 강의소리가 늘 들리고

경주 석굴암에 조각된 것과 같은
영원을 사는 사람의 모양들이
강당마다 학생들 틈에 그윽히 끼어 동행한다.

세계의 마지막 나라 대한민국의
맨 마지막 정적과 의무 속에 자리하여
가장 밝은 눈을 뜨고 있는 모교여
삼세(三世) 가운데서도 가장 쓰고 짜거울 한복판.

영원 속에 가장 후미진 서재

최후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최후로 책임질 것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교여

우리 고향중의 고향이여
진갑(鎭甲)의 수묵(水墨)빛 승의(僧衣)를 입으신

이 크신 아버지 앞에
내 오늘 돌아온 탕아처럼 뒷문으로 스며들면
이 불노(不老)의 님은 주름살 대신에
그 이마 사이 한결 더 밝아지신 백호(白毫)의 빛에 쫓인
감로(甘露)의 영약(靈藥) 사발을 우리에게 권하신다.

찬양할지여다.
찬양하고 또 말지여다.
남에게서 이룩하신 진리의 묵은 발을
그 한 이랑, 한 이랑씩을
말아선 끝없이 꽃피며 갈지로다.

동대신문사

매체비평

- 광고 편

'TTL'

"신비주의를 탈출한 TTL 소녀!
하지만 그녀만의 신비가 그림다"



최근 집행중인 TTL광고 토마토편.

신비의 소녀 임은경이 신비의 허물을 벗고 있다. 영화에도 출연한다고 한다. TTL 광고 '토마토'편에 등장한 모델의 모습은 이전 광고에서의 신비로운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마치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듯한 느낌이다. 연기에서도 그렇고 직접 전달하는 광고 카피를 보아도 이런 징후가 엿보인다.

그 동안 몽환적인 분위기로 10대들의 감수성을 송두리째 잊어왔던 모노톤에서 빨간색 의상을 입은 그녀 앞으로 날아오는 토마토들. 강렬한 이미지를 분출하는 것도 지금까지의 광고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 "토마토 보기도 싫어요" "음악은 다 좋아해요, 다" "남자친구요, 잘 생기면 좋죠, 뭐" "공부에 대신 물어보지 마세요, 충격적이예요" 등 1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스무 살" "Made in 20"이라는 마무리 멘트가 인상적이다. 모델은 이 광고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청춘의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조금은 중성적인 톤의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직접 자기 목소리를 녹음한 그녀의 변신에 대해 수용자들은 놀라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침묵의 겹을 두르고 신비스런 분위기로 일관해오던 그녀의 이런 변신은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과 연계돼 있기도 하다.

영화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비롯해 6-7편의 시나리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광고의 맥락에서 보자면 '토마토' 편은 20대 소녀의 타락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성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신비로운 세계에서 빠져 나와 세속적인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는 신화의 소멸을 의미한다. 임은경이 광고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다고? 개인의 자유 의사가 때문에 타락 필요는 없지만, 이는 보통의 '스타로 커가기 과정'을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세속적인 변신이 그녀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20대에게는 그들의 종교를 잃게 할 것이다. 신비의 소녀여, 변신하지 마라. 너만의 아우라(aura)를 지켜라!

이런 방법을 통하여 비밀의 성인 20대의 감수성을 한껏 자극할 수 있었으며 설령 그 비밀이 입 소문을 통하여 외부로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했었다.

성과 속, 신비주의와 세속주의, 이는 중

교의 탄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거의 2년 남짓 TTL 광고는 우리 나라 20대의 종교적, 대중문화적 교리 역할을 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신비주의의 베일을 벗으려고 한다.

이제는 신화의 소멸을 의미한다. 임은경이 광고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다고? 개인의 자유 의사가 때문에 타락 필요는 없지만, 이는 보통의 '스타로 커가기 과정'을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세속적인 변신이 그녀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20대에게는 그들의 종교를 잃게 할 것이다. 신비의 소녀여, 변신하지 마라. 너만의 아우라(aura)를 지켜라!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마음을 전하는 카드,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느림의 미학 아날로그 카드 · 시대 흐름 발맞춘 디지털 카드, 선택따른 기쁨달라

"편지요~"
연말연시 온 동네에 울려 퍼지던 우체부 아저씨의 정겨운 목소리는 따뜻한 소식만큼이나 반가운 것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체부 아저씨의 넉넉한 웃음과 함께 전해지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대신 인터넷 카드 열풍이 우체부 아저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체부 아저씨의 손길을 거쳐 우편함에 곱게 담겨진 카드가 그리워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옛날 옛적에

몇해 전까지만 해도 문구점에서 직접 구입한 카드에 각각의 사연을 담고 조심스럽게 빨간 우체통에 밀어 넣는 풍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게 보내진 카드를 열면 갖가지 그림들이 튀어나오는 입체카드에서부터 흥겨운 캐롤이 울려 퍼지는 팰로카드에 이르기까지 독특하고 신선한 카드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말 그대로 클릭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카드를 다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진짜 손에 잡히는 따끈따끈한 카드를 구경하는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골라 골라

현재 인터넷 카드 시장은 남대문 시장을 연상케 한다. 무료 인터넷 카드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카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인터넷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수십 개에 이르

고, 우후죽순처럼 속속 생겨나는 인터넷 카드 업체들 때문에 카드 시장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신년 인사를 대신할 수 있는 새해 카드에서부터 생활 속 작은 행사들을 기념할 수 있는 카드, 달콤한 사랑을 새길 수 있는 사랑고백 카드 등 다양한 메뉴를 자랑하는 인터넷 카드가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자연스럽게 카드 업체들은 색다른 디자인과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아이디어 몸살 앓는 인터넷 카드

이처럼 인터넷 카드 업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CP(Contents Provider)사업에 대한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카드업체들은 자사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 승부한다. 확실한 콘텐츠를 보유한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터넷 카드 사업을 부추기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인터넷 카드 업체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다는 푸념들을 쏟아낸다. 때문에 최근 인터넷 카드 업체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모델을 앞다투어 제시하면서 덩치만 커져가고 있는지 모른다.

두 마리 토끼잡기

흔히 편지 속에 사랑은 쓰는 사람의 마음과 읽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전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생활 속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 양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놓여 있다. 이러한 인터넷 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만을 결합시켜 따뜻한 마음과 편리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빠르고 신속한 인터넷 카드에서 우체부 아저씨의 정겨운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카드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의 짜릿한 감촉만은 살려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모니터를 통해 눈으로 읽히지는 인터넷 카드는 편리하고 다양하지만 실제감이 없다. 반면 종이카드는 남다른 정성이 담겨있지만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편리함'과 '정성' 두가지 모두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다. 그러나 선택은 각자의 뒤에 달려있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우표 한장 · 클릭 한번에 담은 카드 이야기

정성, 감동 - 아날로그 카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좀더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들이 느끼는 옛 것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다. 이들은 약간의 불편과 느낌을 즐기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향수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도 예외는 아니다.

KBS 음악프로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시청자가 보낸 수제 카드를 선정해 방청권을 배분한 일과 문화잡지 PAPER가 수제 카드 응모전을 열어 선정된 카드를 시판하기도 한 일은 이러한 흐름 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능률을 추구하는 정보산업 콘텐츠에 가려져 등한시되

던, '정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정신적 여유와 안식을 찾겠다는 의지에서 나타난다.

대중문화평론가 오은하 씨는 "정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심리적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정신적 평안함을 찾기 위한 현상"이라고 전한다.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는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 사실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첨단 디지털 시대가 되어도 변함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 다양 - 디지털 카드

매년 이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와 신년 인사를 위한 카드로 우체국의 우편 배달량을 평소의 몇 배가 되곤 한다. 하지만 이메일이 일반화되면서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고 운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클리칸으로 해결 가능해졌다.

www.cardrock.co.kr에서는 영화 연속 컷에 자신이 원하는 대사를 삽입해 받는 이의 재미를 더하기도 하고, www.boombo.com은 눈, 코, 입, 머리 모양 등을 자유자재로 선택해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동영상이나 카드로 발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백신을 제공하는 바 이러스 카드에 이르기까지 참신함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카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생긴 인터넷 사이트 중에는 이용자가 보내는 이메일이나 카드에 우표를 붙여주는 사이트(www.etamp.com)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이트는 다소 기계적일 수 있는 인터넷 메일에 편지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을 표방한다. 이 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으로 직접 우표를 만드는 코너가 특히 N세대들의 기호에 맞는 것 같다"며 인터넷 우표의 확산을 예상했다.

이처럼 이메일 카드는 기존 오프라인 카드에 비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종류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다. 또한 다양한 카드와 그와 관련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은 편리함과 신속함을 선호하는 네티즌들의 구미에 잘 맞아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fresh@dongguk.edu

잡은소식

학교 안에서

여행을 떠나요

극단 아리랑이 창단 15주년 기념창작극 '여행을 떠나요'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4개의 이야기와 3개

막극의 유니버스 형식으로 표현, 통일이라는 주제 아래 다이나믹한 춤과 음악으로 펼쳐진다.

오늘(1일)부터 3월 4일까지. 오후 7시 30분(화·수·목)/오후 4시·7시(금)/오후 3시·6시(토·일·공휴일)/월요일. 소극장 이리랑에서. 문의 741-5332

이병운 사진전

'불(佛)의 세계-이 뒤편'을 주제로 사진작가 이병운이 개인전을 연다. 경주 불국사와 서울 조계사, 구례 화엄사 등 각지의 사찰과 암자를 은은한 색조와 배경의 사진으로 표현한다.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충무로 후지포토살롱에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2층 갤러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2611-8262

리체데이 마음공연

광대극에 코메디와 비극을 결합,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러시아 마임극단 리체데이가 한국 공연을 연다.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 풍부한 상상력과 기발한 발상의 24개 작품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연출한다.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오후 3시/7시 30분(월~토), 오후 3시/6시(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문의 548-4480

한국서예 2000년전

예술의 전당은 한국서예사 특별전 19번째 전시회 '한국서예2000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서예관 개관 이래 전시했던 2천여점의 작품 중, 한국서예사의 역사적 흐름을 밝히는 대표작가의 작품을 120여점으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 특색이다. 각 시대별 서예의 특징과 중국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일곱 개의 전시회로 구성된다.

다음달 11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예술의전당 서예관에서. 문의 580-1513

메아리

대입 이데아

▲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모두 조그만 교실로 돌아 놓고 전국 수백만의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는 곳.
한국에서 '학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의 지상 최대 과제인 '대학'에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을 위해 복무하는 곳이다. 사방이 꽉 막힌 교실에서 우리의 젊음을 보내는 너무 아깝지만 새벽 보충수업에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학교에서 책상과 씨름해야 하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 매해 11월 중순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전국의 수험생들은 이 시험을 통해 백분율로 순위가 결정된다.
겨울~생 포리표로 불게 될 대학에 가기 위해 눈술, 면접 등 또 한번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소수만이 대학, 그 중에서도 소위 4년제 명문대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 "3만 달러만 가져와~ 단돈(?) 3만 달러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정원 외로 무제한 선발이기 때문에 3만 달러만 있으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 어학실력·수학능력 검증하는 절차 없으니까 초중고 12년을 통째로 위조하든, 일부만 위조하든 웬만해서 들통나지 않잖나. 수능? 말하면 잔소리지... 외국학교 졸업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합격인데

수능은 봐서 뭐하냐? 그제 돈 없고 뺨 없고 선량하고 이뻐한 일반학생들만 보면 되지. 하루 종일 앉아서 시험치는 것도 끈毅力이잖아?"
▲ 정원 외 입학률 통해 한 명의 등록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대학,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는 학부모, 특례입학제의 허점을 악용한 브로커의 '이해와 요구'가 딱! 딱! 맞아떨어진다. 대학교육의 시대주의, 근성과 부유층의 도덕불감증과 금전민증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학벌주의가 뒤엉켜 벌어진 이번 부정입학 사건은 수험생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고 말았다.
비싼 수입자동차를 끌고 진한 한수냄새를 풍기며 가끔 어설플 영어를 내뱉는 친구들... 당분간은 대학에서 이들에 대해 수근거리는 모습이 없어질 것 같지 않다.
김진아 편집장
pazama@dongguk.edu

